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작의>

끼니는 쉽고 빠르게 패스트푸드로 해결한다.
옷은 그때그때 쉽게 사 입고 한철 지나면 버린다.
사람도 목적에 따라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진다.

그야말로 패스트라이프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 모든 것을 쉽게 취하고 또 쉽게 버린다. 오래된 것을 아끼고 지켜나가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찾기 바쁘다. 사람을 만날 때는 머리 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간다. 느리고 불편한 우리 전통보다는 빠르고 실용적이라며 서양 문화를 더 선호한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것을 잃어가는 사이, 중국 정암촌에서는 우리의 것을 지켜내고 있었다. 일제에 의해 중국으로 강제 이주된 이후, 고향의 것을 잃지 않기 위해 지켜온 것이다. 숯한 시련 속에서 고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며, 또 그 속에서 화합의 의미를 발견하는 정암촌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세대가 잃어버린 가치를 발견하고자 한다.

<등장인물>

강씨부인 : 여. 1938년 정암촌 이주 당시 35세. 순애의 시어머니. 정암촌 이주 전 청주에 살았다. 남편이 도박꾼 이원수의 꾀에 빠져 집안이 망한 후 울며 겨자먹기로 연변 이주길에 오른다. 김원수의 아내인 최씨부인과 아들인 이난봉에게 화풀이를 하며 마을에서 왕따시킨다.

순 애 : 여. 이주 당시 16세. 이주 길에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강씨부인과 함께 살고 있다. 다소 눈치가 없고 푼수 끼가 있어 강 씨 부인에게 구박 받지만, 낙천적이고 자상한 성격 때문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좋다. 동정심이 많다.

최씨부인 : 여. 이주 당시 32세. 도박꾼의 아내. 남편 이원수가 강 씨 부인네 재산을 날리고 도망간 후 빈털터리가 되어 길바닥에 나앉는다. 아들 이난봉과 연변으로 이주하나, 거기서 다시 강 씨 부인을 만나 원수 취급을 당한다.

이 난 봉 : 남. 이주 당시 15세. 도박꾼과 최 씨 부인의 아들. 청주에서는 학교를 다녔으나 아버지가 도망간 후 공부를 그만 두고 어머니 최 씨와 함께 이주 길에 오른다. 강 씨 부인에게 원수, 도둑놈 자식 취급 받으며 마을의 아웃사이더가 되고 반항심과 열등감, 피해의식을 가지게 된다.

조 용 길 : 남. 이주 당시 40세. 정암촌의 1대 촌장. 조종혁의 아버지. 인자한 성격을 가진 마을의 정신적인 지주이며 보수적인 인물이다. 고향 청주의 전통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인물로 아들 조종혁과 대립하게 된다.

조 종 혁 : 남. 이주 당시 24세. 조용길의 아들.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사상과 문명을 받아들이는데 관심이 많은 인물로 아버지 조용길과 대립하게 된다. 똑똑하고 적극적이나 이상주의자이다.

배 익 구 : 남. 이주 당시 20세. 살인 전과자. 살인을 저지른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연변으로 도망치듯 이주 온 인물이다. 기회주의적이며 이기적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을을 위협한다.

김 민 철 : 남. 이주 당시 20세. 고아 소리꾼. 가족이 없어 정암촌 사람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순애를 짝사랑한다. 외로움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인물. 낙천적이고 밝은 성격을 가졌다. 청주아리랑을 지키는 인물이다.

박 치 훈 : 남. 이주 당시 22세. 정암촌의 2대 촌장

황의중, 조문근 : 남. 1978년 청주아리랑 발굴 당시 각각 52, 35세. 청주 문화원형 발굴단.

그 외 유 씨 부인, 대성댁, 문암댁, 방서댁, 장성필, 장재민, 장재호, 박영난 등

<줄거리>

청주에서 왔습니다.

때는 1978년. 청주아리랑의 원형을 찾던 황의중 교수와 조문근 연구원은 중국 정암촌에서 청주아리랑의 원형을 찾을 수 있다는 전보를 받는다. 조문근은 생일을 앞둔 딸을 생각하며 황의중 교수와 함께 중국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다. 조문근은 정암촌에서 청주아리랑을 지켜왔다는 김민철을 만나 정암촌 정착 후 있었던 이야기들을 듣게 된다.

때는 1938년

만주 땅에 이주행렬이 이어진다. 좁아터진 조선에 사느니 넓고 비옥한 만주 땅에 가면 지주가 될 수 있다는 일본의 감언이설에 너도나도 이주 길에 올랐다. 그러나 저마다 희망을 가지고 새터를 찾아온 이주민들 눈앞에 펼쳐진 것은 광대한 황무지. 그제야 속은 것을 안 사람들은 좌절하고…….

아니 이 웬수들이, 여기가 어디라구 온겨!

한 해가 지나고, 마을은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추었다. 어느 날 밭일 하던 강 씨 부인

앞에 강 씨 부인네를 말아먹은 철천지원수 도박꾼의 아내 최 씨 부인과 그 아들 이난봉이 나타난다. 잡아먹을 듯 한 강 씨 부인의 기세에 이난봉의 반항심은 커져만 가고 순애는 그런 이난봉이 안쓰럽다. 난봉은 친절하 순애가 고맙기도 하지만 강 씨 부인 생각만 하면 화가 치민다.

왜, 그 얼마 전부터 얼쩡거린다던 그놈 아니유

마을에 웬 낯선 남자가 얼씬거리기 시작했다. 여기저기 다니며 수상한 기색만 내보이고 마을의 공동 작업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는 배억구가 바로 그. 얼굴에 흉터하며 인상하며 영 찻찻하다. 어느 날 저녁 배억구와 술을 마시게 된 박치훈은 배억구가 술김에 한 말에 귀를 의심한다. 사람을 죽였다고?

청주아리랑과 함께 추석 밤은 저물어 가고

어느새 정작 후 첫 추석이다. 고생 끝에 밭을 일구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큼 수확도 하고 마을 사람들 간에 다툼도 줄었다. 어느 때보다 기쁜 이날, 모두 하나가 된 마을 사람들은 다함께 청주아리랑을 부른다.

1967년, 어둠의 그림자

마을의 흥년과 함께 중국 문화대혁명이 시작된다. 촌장 네에 마련된 마을회관에서 날마다 대책회의가 열리고 사람들의 불만은 하나씩 늘어간다. 흥년인 탓에 수확을 거의 하지 못한 식구들도 한둘이 아닌 상황에서, 일을 거의 하지 않고 뻘질거리던 배억구와 이난봉은 비난의 화살을 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찾지 않고 전통을 지키려는 촌장 조용길의 모습에 조종혁은 반발하기 시작한다.

태우기만 하면 다행이게유, 사람도 해친다잖여

조종혁은 급기야 마을을 개혁하자며 홍위병들을 마을에 끌어들인다. 조종혁의 편에 붙은 배억구와 이난봉은 사실 개혁은 안중에도 없다. 평소 자신들을 배척하던 마을 사람들에게 복수할 구실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마을의 족보와 책은 태워지고 악기는 부수어지는데…….

살짝 겁만 주자구! ...이건 아니야

마을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홍위병은 배억구를 유혹한다. 반대 세력을 제거하면 포상을 한다는 말에 눈이 먼 배억구는 이난봉을 부추겨 방화 계획을 세우는데……. 정암촌 사람들은 청주아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

<아리랑>

001. 1978년 청주대학교 청주문화원형연구소 - 오후

황의중 교수는 큰 창문을 통해 오후의 햇살이 비치는 연구실에서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황해도 아리랑을 듣고 있다. 단정하게 차려 입은 한복에는 흐트러짐이 없다. 눈을 감은 채 큰 안경을 정성스럽게 닦고 있다. 책상에는 청주관련 책들이 잘 정돈되어 쌓여있으며, 잘 키운 난들이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다. 황해도 아리랑은 깊은 설움을 토해내듯 한이 서려있다. 황의중 교수는 다시 펜을 들기 시작한다. ‘청주아리랑의 원형’의 제목의 글은 아직 서론도 시작하지 못하였다. 황의중 교수는 한편에 정성스럽게 쌓아놓은 녹취록들을 가져온다. 며칠 전 청주의 한 마을에서 적어온 것들이다. 청주아리랑의 실체에 다가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들이다. 아쉽다. 청주의 것을 청주에서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사실이다. 푹푹둑. 누군가 급하게 방문을 다그친다.

황의중 : 들어오게나.

문을 열고 들어선 조근석은 숨을 급하게 몰아쉰다.

조근석 : 교수님! 교수님!

조근석은 상기된 표정으로 두 손에 소중하게 전보를 들고 서있다.

황의중 : 조군, 내가 부탁한 서류를 벌써 끝낸 건가?

조근석 : 교수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황의중 : 찾다니? 무엇을 말하는 건가? 차근히 말해보게.

조근석 : 교수님께서 그렇게 바라던 것을 드디어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황의중 : 어허, 자네 오늘따라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조근석 : 교수님의 보물, 청주아리랑. 청주아리랑을 찾았어요.

황의종교수는 가슴에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조근석의 전보를 가로챈다.

황의종 : 정말이냐?

조근석 : 예. 연변조선족자치주 도문시 정암촌에 1940년대의 청주가 그대로 있네요.

황의종교수는 전보를 차근차근 읽어나간다. 그 전보의 한 문구가 황의종교수의 눈에 들어온다. “...연변조선족자치주 도문시 정암촌에 충북 출신 조선족들이 자신들의 전통문화를 간직하고 있으며, 한국 전통 민요를 들을 수 있었다...” 이 전통 민요가 청주아리랑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이라면 정암촌 사람들이라면 청주아리랑을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든다.

황의종 : 조군, 중국에 가봤나?

조근석 : 아뇨, 아직 국외는 한번도.....

황의종 :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네. 내 귀로 똑똑히 청주아리랑을 듣고 와야겠어.

조근석 : 연변문학예술연구소에게 좀 더 조사를 부탁한 후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황의종 : 청주아리랑은 우리의 민요야. 우리의 것을 남을 통해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네.

조근석 : 짧은 거리도 아닌데, 좀 더 조사를..... 조금 있으면 딸애 생일이.....

황의종 : 우리가 청주아리랑의 원형을 찾는다면 민속학적으로 아주 큰 성과이네. 나 뿐만 아니라 자네에게도 청주아리랑은 특별하지 않나?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아리랑을 발견해 낸다면 딸애에게도 좋은 생일선물이 될 거야. 서두르게. 이틀 뒤 바로 떠날 거야.

조근석 : 아, 예. 알겠습니다.

조근석은 간다고 대답은 했지만, 가족을 두고 먼 길을 간다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002. 조근석의 집 - 저녁

청주대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주택들이 모여 있다. 한옥의 양식으로 지어진 주택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자리 잡고 있다. 그 중 청주대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빨간색 지붕의 가정집에는 저녁준비가 한참이다. 아이는 대문 근처에서 우수상이 적혀있는 상장을 들고 들떠있다. 식탁에는 방금 요리를 끝낸 된장찌개가 맛있게 끓고 있으며, 여러 반찬들과 함께 유독 도라지 무침이 가득 담겨 있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들어온다. 아이는 신발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상장을 손에 꼭 쥐고 달려 나간다.

민 정 : 아빠. 나 노래 부르기에서 1등 했어.

조근석 : 어이쿠, 우리 딸 잘 있었어? 노래 부르기에서 1등 했다고?

민 정 : 응, 응. 노래 부르기에서 내가 좋아하는 아리랑을 불러서 선생님이 상장 줬어.

조근석 : 우리 딸 대단하네. 아빠랑 같이 불러볼까?

민 정 : 응

조근석, 민 정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 내 : 여보, 오셨어요?

조근석 : 어. 잘 있었어? 내 반쪽.

조근석은 아내의 볼에 살짝 입을 맞춘 후 딸을 안고 식탁으로 간다.

조근석 : 히야. 오늘따라 맛있는 반찬만 내 놓았네?

아 내 : 언제는 내가 맛있는 반찬만 내 놓았나?

조근석 : 맞다 맞아. (손으로 도라지를 먹으며) 도라지가 참 맛있어.

아 내 : 얼른 앉아서 식사하세요.

조근석 : 민정아, 밥 먹자.

세 가족은 맛있게 식사를 한다. 아이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하나라도 빠질세라 쉽 없이 아버지에게 이야기 한다.

조근석은 식사를 마치고 아내와 이야기를 나눈다.

조근석 : 여보, 나 중국에 가게 되었어.

아 내 : 정말요? 언제 가시나요? 곧 있으면 민정이 생일인데…….

조근석 : 그게 민정이 생일날 가게 되었어.

아 내 : 작년에도 민정이 생일날 출장가서 민정이가 얼마나 실망했는데, 하루만 미루면 안 되나요?

조근석 : 나도 처음에는 말씀드렸지. 하지만 황 교수님이 이번 출장을 워낙 서두르셔서…….

아 내 : 그래도 하나 밖에 없는 딸애 생일인데…….

조근석 : 이번에 가면 청주아리랑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번 발굴은 나에게도 큰 업적이 될 것 같고. 민정이한테 청주아리랑은 좋은 생일선물이 될 것 같아.

아 내 : 다녀오세요. 아빠가 아리랑 찾으러 갔다고 하면 민정이라도 좋아 할 거.

조근석 : 너무 걱정하지 마. 정암촌 근처에 전화국이 있어서 자주 연락할 수 있을 것 같아.

조근석은 아내와 이야기를 마치고 방에서 잠이든 딸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준다.

003. <연변으로 이동>

황의종교수는 조근석을 책임조사원으로 하여 조사원 박미선, 김정선과 함께 연변문학예술연구소로 향한다. 황의종교수는 이동 내내 지금까지 모아온 청주아리랑 관련 자료들을 정독한다. 조근석은 교수님을 비롯하여 조사원들의 불편한 점을 챙겼고 시간 나는 데로 틈틈이 가족들에게 편지를 쓴다.

004. 연변문학예술연구소 마당 - 이른 아침

연변문학예술연구소에 다다를 쯤 리연철 소장이 먼발치에서 마중을 나와 있었다. 소장은 큰 키에 깡마른 체격으로 검게 그을린 피부가 여름내 그간의 고생을 말해준다.

리연철 : 황의종교수님, 먼 길 오셨습네다.

황의종 :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지요? 정암촌은 여기서 가깝지요?

리연철 : 우리 황 교수님, 여행길이 힘드셨을 텐데 마음은 벌써 정암촌에 가 있네요.

황의종 : 맞습니다. 타지에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정암촌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고 싶지요.

조근석 :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리연철 : 아, 자네가 조근석 조사원인가?

조근석 : 절 알아보시네요.

리연철 : 알다마다. 며칠 전 전화상으로 들은 서글서글은 목소리는 내 아직도 기억하지. 목소리뿐만 아니라 인상도 좋고 인물도 흰칠하네. 잘 오셨소.

조근석 : 제가 그랬나요?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리연철 : 자자, 우선 사무실에 들어가서 정보도 들으시고 차도 한잔 내드리겠습니다.

황의종 : 예. 정암촌에 대해서 들어봅시다.

005. 연변문화연구소 안 - 오전

황의종교수를 비롯한 청주아리랑 발굴단은 지금까지 연변문학예술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를 듣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일정을 보충한다. 책상 위는 온통 서류와 지도로 어지럽다. 발굴단은 두세 번에 걸쳐 계획을 점검한 후 리연철 소장의 안내를 받으며 정암촌을 찾아간다.

006. 정암촌 입구 - 낮

정암촌은 서쪽으로는 연변의 주도인 옌지시와 가깝고 동쪽으로는 북한의 온성과 가까운 투먼시에 위치하고 있다. 가는 길목마다 나무가 빼곡히 자라나 있고, 마을에 가까워지자 잎담배와 인삼밭이 곳곳에 눈에 띈다. 마을 북쪽에는 정자와 닮은 큰 둥그런 바위가 위세를 자랑하고 있었다. 아마 정암촌의 이름이 저 바위에서 왔나 보다. 마을 입구에는 가장 먼저 허수아비가 외로이 우리를 맞이한다. 허수아비의 머리에는 고운 땡기가 바람에 살며시 날리

고 있다.

리연철 : 여기가 바로 정암촌입네다.

조근석 : 여기 연변 맞죠? 하나도 낯설지가 않아요. 청주에 다시 돌아온 느낌이랄까?

황의중 : 작은 청주를 보는 것 같군.

박미선, 김정선 : 이제 저희가 발품을 팔 차례가 되었네요.

조근석 : 웬지 정암촌은 많은 사연을 담고 있을 것 같아요. 외로운 허수아비 하며, 자갈밭을 일군 논하며, 멀리서 들려오는 농악소리.....

황의중 : 우선 마을 촌장을 찾아뵙고 협조를 구해야겠습니다.

리연철 : 그런데, 그게 좀 힘들겁니다.

황의중 : 제대로 조사를 하려면 촌장의 협조가 없이는 힘들지요.

리연철 : 예전 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바뀐 새 촌장이 타지 사람을 많이 계한다고 들었습니다. 듣기로는 수년 전에 일이 있었다며.....

조근석 : 고향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면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겠어요?

리연철 : 그러면 일단 가봅시다.

발굴단 일행은 촌장 가는 도중 마주치는 정암촌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마을사람들은 정답게 인사를 받아준다. 사람들은 청주대학교가 적힌 수첩을 발견하고는 고향 사람을 만난 듯 기뻐하며 청주 소식을 묻고, 멀리 공터에는 흥겨운 농악소리가 발굴단 일행의 발걸음을 가볍게 한다.

007. 촌장의 집 앞 - 오후

마을 입구에서 한참을 지나 정암산 어귀에 넓은 마당을 가진 한옥에서 장작 패는 소리가 들려온다. 대문이 굳게 닫힌 마당에서 정암촌의 촌장 박치훈이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장작을 향해 도끼를 내려찍는다.

박치훈 : 요즘 어린 것들은 무조건 타지의 것이라면 좋아해서 문제야.

발굴단 일행이 촌장의 집에 다다라서 굳게 닫힌 대문을 두드린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장작 패는 소리에 튕겨져 나온다. 다시 한 번 황 교수가 대문을 두드리며 시끄러운 목소리로 촌장을 부른다. 촌장은 낮은 목소리에 도끼를 내팽개치고 대문 쪽으로 다가간다.

박치훈 : (대문을 살짝 열고 경계하는 눈초리로) 누구시오?

황의중 : 어르신, 처음 뵙겠습니다. 황의중이라 합니다.

박치훈 : (무리 지어 집 앞에 모여 있는 모습을 못마땅한 듯 냉랭한 목소리로) 무슨 일로 오셨소?

황의중 : 저희는 청주의 아리랑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박치훈 : (조사라는 단어에 눈살을 찌푸리며) 우리 마을에는 조사할 것 없소. 돌아가시오.(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을 닫으려고 한다.)

조근석 : (닫히는 문을 어르면서 활짝 웃으며 인사한다.) 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근석입니다. 정암촌에 40년대의 청주가 그대로 있다기에 청주에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박치훈 : (정그렸던 미간을 풀며) 충북 청주에서 왔소?

조근석 : 예. 사라지는 청주의 전통들이 아쉬워서, 정암촌까지 찾아왔지요.

박치훈 : 그렇소? 하지만 내 미리 전해들은 바가 없소만은.

리연철 : (편지가 잔뜩 쌓여있는 우체통을 바라보며) 어르신께서 편지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박치훈 : 멀리서 오신다고 고생하셨지만, 오늘은 내 바쁘니 돌아가시오.

008. 마을 길 - 저녁

발굴단 일행은 더 이상 촌장과 이야기를 이어갈 수 없음을 느끼고 발길을 돌린다. 황의중교수는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해서 언짢아하고 있다. 멀리서 세련된 옷차림을 한 청년이 발굴단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

박영철 : 연변문학예술연구소에서 오셨나요?

리연철 : 저희가 맞소만……

박영철 : 편지를 봤습니다. 아버지께서 노하실 것 같아 내용만 보고 다시 넣어두지요.

조근석 : 촌장님 아드님 되시는가요?

박영철 : 인사가 늦었습니다. 박영철입니다. 아버님께서 예전 문화대혁명 이후 타지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놓지 않으십니다. 제 동생이 그날…….
(급하게 말을 돌리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게 말해 주세요. 제가 아버님
대신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 길 오셨을 텐데 짐부터 푸세요. 마을
회관을 비워놓았습니다.

009. 마을 회관 - 밤

박영철의 안내를 따라 발굴단 일행은 마을 회관으로 걸음을 옮긴다. 전통방
식 그대로 지어진 마을회관은 햇볕이 잘 드는 남향을 하고 있었고, 모두가
지내기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넓고 쾌적하다.

짐을 풀고 마을 회관에 임시 연구소를 정한 발굴단은 황의종교수의 지시에
따라 각자 역할을 나눈다. 조근석 책임연구원은 마을 어른들을 직접 만나며
구비 전승되는 문화원형들을 찾아나서는 역할을 맡는다.

창 밖에는 보름달이 밝다. 한국을 떠나기 전 청얼대던 민정의 얼굴이 떠오
른다. 눈을 감고 잠을 청한다.

010. 마을 입구 평상 - 오전

조근석은 뻘뻘한 일정에도 피곤한 기색 없이 마을 어른들은 만나러 발걸음
을 옮긴다. 우선 마을 입구 근처에서 보았던 오래된 나무 밑 평상으로 간다.
평상 위에는 마을 어른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여유롭게 즐기고 있다.

조근석 : (매우 밝은 표정으로)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충주에서 온 조근석이라고 합
니다.

어르신 1 : 아이구, 고향에서 손님이 왔네.

어르신 2 : 젊은이 여기에 편히 앉게나.

조근석 : 고맙습니다. 제가 어르신 쉬시는데 방해가 된 것은 아닌지요.

어르신 1 : 아니야. 우리는 고향 총각이 그저 반갑지.

어르신 2 : 청주는 어떤가? 풍년인가? 모두들 농악소리에 맞춰 흥겹게 일하고 있지 않는가?

조근석 : 청주도 많이 변했어요. 지금은 아리랑 소리도 찾기 힘든걸요.

어르신 1 : 그것이 참말인가? 농악소리도 아리랑도 들리지 않는가?

어르신 2 : 어허, 왜 그렇게 됐던가?

어르신 1 : 김 씨가 들으면 많이 섭섭하겠네.

조근석 : 김 씨가 누구죠?

어르신 2 : 김 씨한테 아리랑은 특별하지.

조근석 : 김 씨 분이 아리랑에 대해서 잘 아나요?

어르신 1 : 알다마다. 지금도 아이들에게 아리랑을 가르치고 있는걸?

어르신 2 : 저기 큰 길 따라 조금만 내려가면 김 씨가 아이들에게 우리 소리를 가르치고 있을게야.

조근석 : 감사합니다. 어르신. 건강하십시오.

조근석은 인사를 마치자마자 벌써 아리랑을 찾은 듯 경쾌한 발걸음으로 큰 길을 따라 내려간다. 얼마 가지 않아 장구소리와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011. 김민철의 집의 마루 - 오전

김민철 : 덩 기덕 쿵 더러러러

아이들 : 덩 기덕 쿵 더러러러

김민철 : 아리라랑 스리라랑 아라리요 아리라랑 스리라랑 아라리요

아이들 : 아리라랑 스리라랑 아라리요 아리라랑 스리라랑 아라리요

조근석은 담 너머로 따라 부르면서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수업이 끝나자 조근석은 김민철에게 다가간다.

조근석 :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김민철 : 자네 소리가 맑더구만.

조근석 : 들으셨습니까? 기다리면서 아이들을 따라 불렀는데.....

김민철 : 아리랑을 배우러 왔는가?

조근석 : 예. 아리랑도 배우고 어르신 이야기도 들을까 해서 청주에서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김민철 : 마침 오늘 수업은 다 끝났으니, 시간내보겠네.

김민철은 아이들이 어지럽게 두고 간 장구와 악보들을 정리하고 조근석을 위해 오래된 차를 내온다.

김민철 : 그럼 오랜만에 고향에서 온 손님이니 내 녀두리다 생각하고 들어보시게.

조근석은 녹음기를 꺼내 김민철의 이야기를 담을 준비를 한다. 김민철은 수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어제 있었던 일처럼 막힘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012. 1938년 <만주 가는 길>

충청도에서 만주로 가는 행렬이 길게 이어진다. 각종 농기구를 들쳐 메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느 남정네, 짐을 머리에 이고 아이를 등에 업은 아낙네, 조그만 보따리를 기다란 나뭇가지에 꿰고 불이 빨갛게 얼어서는 장난을 치며 엄마 주위를 맴도는 아이들 등등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이주행렬 속에서 각자의 꿈에 부풀어 있다.

김도령 : 자~ 빨리빨리 움직입시다! 얼마 안 남았어요!

문암댁 : 거기가면 정말 옥수수 이삭이 팔뚝만하답니까?

박치훈 :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만주에 가면 땅에는 쌀이 많고, 조 이삭은 허리띠만큼 길고, 감자는 물둥이만큼 크고, 콩알은 열콩 알만큼 크고, 옥수수 이삭은 팔뚝 사리만 하고, 호박은 쪽지게에 지도록 크고, 콩대는 지팡이를 만들어 쥘 정도랍니다.

장성필 : 3년 간 자기 농사지어서 먹고 3년 후부터 공출하는데, 그 3년이면 빗 값도 땅 사고 지주 된다고 합니다. 딱 3년만 고생하면 청주서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을 거외다.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노래를 흥얼거리려보지만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점점 말을 잃어간다. 어느 새 오랜 시간 걸은 탓에 사람들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진다.

길을 가던 중 강변을 건너야 하기에 얼음장 위에 서서 남정네들이 바지를 걷어 올리고 아이들을 강 건너편으로 옮긴다.

연 희 : 엄마 추워...

유씨부인 : 조금만 더 참아, 곧 도착할거야.

유씨부인은 얇은 홑겹 저고리를 딸(연희)에게 덮어주지만 이미 뽀뽀 얼어버린 어린 소녀의 몸은 몸이 쉽사리 녹여지지 않는 모양이다.

연 희 : 손도 시리구 얼굴도 시려 엄마. 발은 뽀뽀 얼었는지 이젠 아무 감각도 없는데..

유씨부인 : 저~기 김 씨 아저씨(김기진)네 순애언니 보이지? 저 언니는 추위도 씹씹하게 잘 가잖아. 원래 시집가려면, 순애언니처럼 저렇게 용감해야 하는 거야. 우리 딸은 시집가려면 아직 멀었네?

연 희 : 아니야! 나도 잘 갈 수 있어. 순애언니 혼례 치를 때 엄~청 예쁘던데……. 나 씹씹하게 잘 가면 예쁜 치마저고리 입고 시집갈 수 있는 거야?

유씨부인 : 그럼~

몸이 약해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타는 딸을 유씨부인이 웃으며 다독거린다. 그 모습을 보던 순애는 연희를 보며 싱긋 웃고는 우스꽝스런 몸짓으로 팔을 크게 앞뒤로 휘저으며 걸음을 걷는다.

강씨부인 : (순애를 흘려보며) 애! 너 갓 혼례 치른 새색시가 정숙치 못하게 행실이 그게 뭐니! 이리 와서 이것 좀 들거라.

순 애 : (입을 삐죽거리며) 네 어머니님…….

순애는 강씨부인의 짐을 받아 들고는 뽀로통한 표정을 짓는다. 남편 김현수

는 그런 색시를 보며 마냥 웃는다.

김현수 : 부인, 이리 줘. 내가 들게.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던 순애는 짐을 남편에게 건넨다. 그 때 흘끗 뒤돌아 보는 강씨부인과 눈이 마주치고 화들짝 놀라며 다시 남편에게서 짐을 빼앗아 손에 들고는 히죽 웃는다.

강씨부인 : 너는 어찌된 애가 그리 웃음이 해퍼! 어디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정말.

김 기 진 : 그만 조용히 하고 길이나 갑시다.

남편 김기진의 근엄한 호통에 강씨부인은 괜히 순애를 흘겨보고 부지런히 걸어 남편을 뒤따라간다. 큰 고개를 하나 넘었지만 여전히 만주 땅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짚신이 떨어져 맨발로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식량이 부족해서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하나 둘씩 기력이 떨어져 이주 행렬에서 뒤처진다. 촌장(조용길)을 모시고 앞서 나가던 촌장 아들(조종혁)은 뒤를 돌아서 멀리 이어진 이주 행렬을 향해 소리친다.

조종혁 : 여기서 잠시만 쉬어갑시다!

사람들은 각자 바위나 평평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손을 비비며 추위를 잊어보려 애썼고 주변에 먹을거리가 없는지 찾아다니기도 한다. 몇몇 사람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쓰러져간다.

조용길 : 이 추위에 가만히 앉아서 쉰다면 체온이 떨어져 위험할 게다. 계속 움직이지꾸나.

조종혁 : (잠시 생각하다가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체온이 떨어지니까 조금씩 움직입니다! 어르신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은 먼저 출발

하고 젊은 남자들은 먹을거리를 찾아서 뒤따라갑시다!

명하게 앉아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이어서 하나둘씩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장성필 : 하아... 이제야 좀 쉬나했더니.....

박치훈 : (부인인 대성덕을 보며) 갔다 올게. 애들 잘 챙기고 천천히 가고 있어, 금방 따라갈 거야.

영 난 : 아빠 맛있는 거 구해와~

김도령 : 자~ 출발합시다!!

남자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다.

김 현 수 : (김도령을 보며 일어서다가 급히 뒤돌아 색시를 보며)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조심해서 가고 있어. 먹을거리 찾으려면 금방 갈게.

순 애 : (남편을 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김 현 수 : (부모님을 보고) 어머니 아버지 다녀올게요. 색시 잘 챙겨주세요.

강씨부인 : 넌 네 색시가 예미보다 더 중허냐? 쫓, 조심해서 갔다 와.

김현수는 서글서글한 웃음을 짓고는 서둘러 뛰어가 젊은 남자들 무리에 섞인다. 뒤이어 남은 사람들도 주섬주섬 짐을 챙겨서 다시 일어난다. 이주 행렬은 그렇게 다시 이어진다.

연 희 : 엄마 너무 추워... 다리도 아프구..... (애교 부리듯 칭얼거리며) 엄마가 업어주면 안 돼? 엄마 등이 따뜻할 것 같은데.....

유씨부인 : 다 큰 처녀가 어딜 업히려구! (연희를 밋지 않게 흘려본다.)

연 희 : 엄마도 춥잖아. 내가 업히면 엄마도 따뜻할걸?

유씨부인 : (못 이기는 듯이) 으이그. 이리 와서 업혀.

이주 행렬의 끝자락으로 뒤쳐진 유씨부인은 연희를 업고 길을 걷기 시작한다.

연 희 : 아……. 엄마 등 따뜻해.

유씨부인 : 너 업어주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야! 자꾸 업히면 다시 애기 되서 시집 못가~

연 희 : 응...시집가면 내가 엄마 업어줄게 걱정 마. 졸려…….

유씨부인 : 졸려도 조금만 참자. 배고프지? 거기 가면 엄마가 우리 연희 좋아하는 빈대떡도 부쳐줄게. 연희가 엄마 힘내라고 해줘야 엄마가 열심히 갈 수 있지~

연 희 : 응...거기 가면 엄마도 더 고운 옷 입을 수 있을 거야...나도 고운 옷 입고 시집가구…….(잠든다)

유씨부인 : (혼잣말로) 어린 것이 지칠 만도 하지...(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그래 조금만 더 힘내자

이주민의 행렬은 꾸물꾸물 느리게 움직인다. 각자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듯 하지만 행렬전체의 느린 움직임은 묵묵하기만 하다. 행렬 속에서 다시 연희를 업고 있는 유씨부인의 모습이 보인다. 연희는 잠들어 있다. 하지만 유씨부인이 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허리춤 밑으로 흔들거리는 푸르스름하게 굳어버린 연희의 발과 유씨부인의 심상치 않은 표정이 연희가 그저 잠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유씨부인 :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작게 몸을 떠다. 한동안 믿지 못하겠다는 듯 목소리를 내려 노력하며 작은 소리로) 연희야…….

그때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마을 남자들이 돌아와서 행렬을 따라잡는다. 다들 무리 속으로 들어오는 모습. 조용길은 조금이나마 구한 먹을거리를 아이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이리저리 둘러보고 다닌다. 집집마다 아이들은 돌아온 아버지들을 반기며 다리에 붙는다.

박치훈 : (영철, 영난에게) 여기까지 썩썩하게 잘 왔네~.

문암댁 : 뭐가 썩 있던가요?

장성필 : 아이고, 어디를 가나 처지가 다 비슷하더라.

여러 가족들의 모습 속에 유독 조용한 조종혁의 가족. 조종혁은 연희를 업고 선 유씨부인의 흔들리는 눈빛을 침울하게 바라보고만 있다.

또 다른 가족인 김기진과 강씨부인과 순애는 김현수를 기다리고 있지만 아무리 봐도 김현수는 오질 않는다.

강씨부인 : (재회하는 다른 가족들을 둘러보며) 이 녀석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지.

김 기 진 : 알아서 올 것이니 가던 길이나 잡시다.

강씨부인 :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다 오는데...(순애에게) 넌 서방이 걱정 되지두 않아? 박치훈한테라도 물어보고 와. 어서.

김기진은 부인을 언짢게 쳐다보지만 순애도 강씨부인처럼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돌아온 마을 아저씨들에게 달려간다.

순 애 : (박치훈에게) 박치훈 아저씨~ 혹시 제 서방님은 못 보셨나요?

박치훈 : 현수? (장성필을 보며 동의를 구하듯) 먼저 간 것 같은데?

장성필 : 그럴걸세~ 만주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 알아서 찾아 올 거야.

순 애 : 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저씨들과 순애의 대화를 들은 김기진은 말없이 고개를 돌려 다시 걷기 시작하고, 강씨부인은 김기진 뒤를 따른다.
얼마쯤 더 걸어갔을까.

김도령 :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민요 가락이다.)

땅만 보고 지친 걸음을 옮기던 사람들은 김도령의 노랫소리에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핀다. 어느새 만주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한숨 쉬인 탄성을 지른다.

박치훈 : 이제 정말 다 왔습니다! 저겁니다! 저 고개만 넘으면 우리가 살 곳이 보일

겁니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순애 : (김현수를 생각하는 듯 초점 없이 걷다가 힘없이 고개를 든다.) 우와…….
어머님, 저기 서방님이 계실지도 몰라요!

순애는 지친 몸을 이끌고 서둘러 걸음을 옮긴다. 그런 순애의 모습을 바라보던 유씨부인은 등에 업힌 채 아무런 말이 없는 연희를 다시 한 번 고쳐 업는다. 그 때 연희의 손이 유씨부인의 어깨에서 아래로 툭 떨어진다. 유씨부인은 순간 걸음을 멈췄다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입술을 깨물며 앞으로 걸어 나간다.

유씨부인 : 연희야, 이제 다 왔다. 저기 가면 엄마가 고운 치마저고리도 만들어주고
네가 좋아하는 빈대떡도 만들어주마. 다 왔다. 이제 다 왔어.

사람들을 앞질러 걸음을 빨리하던 순애는 점점 뛰기 시작하고, 잠시 뛰던 순애는 언덕고개 끝자락에서 걸음을 멈춘다. 그런 순애의 행동을 보던 김도령이 달려와 보곤 그 옆에 함께 걸음을 멈춘다. 어리둥절해진 마을 사람들이 순애와 김도령을 바라본다.

강씨부인 : 새아가, 우리 현수 거기 없니?

조종혁 : 무슨 일 있습니까?

조종혁이 달려와서 앞을 내다본다.

조종혁 : 이, 이럴 수가... 설마 여기?

박치훈 : 무슨 일입니까?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달려와서 같은 자리에 선다. 그들은 한동안 말을 잃는다. 소문으로 떠돌던 옥수수가 팔뚝 만하게 자라는 비옥한 땅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야 말로 황무지였다.

장성필 : 정녕 우리가 살 곳이 여기란 말입니까? 여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보시오, 박치훈! 당신이 말한 살기 좋은 땅은 대체 어디 있소!!!!

박치훈 : 그걸 왜 나한테 따지는 거요! 내가 여기 와보길 했소, 아님 이 땅을 내가
만들었소! 나 역시 속은 기분이란 말이오!!!

영 난 : 아빠 배고파…….

모두가 망연자실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만다.

방서택 :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죽기 살기로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 쯤 시간이 흘렀을까. 사람들은 허탈함에 추위도 잊고 차가운 땅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마을 아저씨들은 여전히 티격 대고 있었으며 아낙네들은 말없이 아이들을
달래고 있었다. 그때 고향에서 마을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며 사람들
의 정신적 지주와 같았던 조용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용길 : 우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루 빨리 터를 일궈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주고 살아 나가야 합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김도령 : 제 생각도 같습니다. 지금 서로 싸워봤자 하나도 득 될게 없습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마을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장성필 : 대체 이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는단 말입니까.

조용길 :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네. 여기까지 우리가 온건 그 전보다 더
잘 살기 위함이 아닌가. 조상들도 이런 땅에서부터 시작했을 걸세. 고향에
서 쓰던 그 방법 그대로 농사를 지어서 우리의 것을 이어나가는 것이 우
리에게 주어진 임무라 생각하고 어서 일어나게.

사람들은 마을의 어른이 타이르자 그제야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용길 : (가만히 유씨부인을 보며) 아가, 일어나거라. 가자.

유씨부인은 조용히 연희의 차가운 몸을 끌어안고 일어난다. 눈물을 참았는지 짝 깨문 입술이 피가 날 듯 붉다. 조종혁은 그런 아내를 말없이 바라본다.

조 종 혁 : 묻고 갑시다.

유씨부인 : 여긴 너무 춥습니다. 마을을 일귀서 햇볕이 잘 드는 자리에 묻어주고 싶습니다.

유씨부인은 연희를 들쳐 업고 앞장서서 걸어간다.

013. 정암촌 마을 어귀 - 오전

만주에 도착한지 한 해가 지났다. 마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마을 곳곳에 집들이 생겨났으며 밭도 농사를 할 수 있을 만큼 일구어 졌다. 마을의 어른인 조용길은 마을 서북쪽에 있는 정자바위의 이름을 따서 마을의 명칭을 '정암촌'으로 정했고,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 촌장을 맡기로 했다. 잇따라 또 다른 이주 행렬이 이어졌고 마을에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났다.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고 정암촌에서는 점점 사람 사는 냄새가 풍겼다.

순애가 마을 어귀에 있는 커다란 바위에 걸터앉아 있다. 밭을 일구고 오던 유씨부인이 순애를 발견하곤 곁으로 다가간다.

순 애 : (밭소리를 듣고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앞을 보며 말한다.) 아직도 안 와요. 다른 마을로 가셨나? 나 말고 딴 색시가 생겼나?

유씨부인이 순애 곁에 걸터앉는다.

순 애 : 나 말이에요, 우리 서방님 길 잃지 말고 잘 찾아오라고 요~앞에 마을 입구

에다가 날 닮은 허수아비 하나 세워놔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뽀아 놓으라고 하신 풀 모아다가 머리카락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우리 서방님이 주신 고운 땡기 드려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할 거예요. 이걸요.

순애는 저고리 소매에서 예쁜 땡기를 꺼내어 유씨부인에게 보여준다. 유씨부인이 말없이 땡기를 바라본다. 순애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연다.

순 애 : 곧 오시겠죠?

아직은 차가운 바람이 불고 순애의 치맛자락이 흔들렸다가 제자리에 놓인다. 그 때 뒤에서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리고 마을 아이들이 달려온다.

재 호 : 야~ 저기 불쌍한 과부다!

영 철 : 과부가 뭐야?

재 호 : 우리 엄마가 아빠한테 그러는데~ 언이 엄마처럼 서방이 없으면 과부됐어!

재 민 : 그럼 저 누나는 혼자서 혼례 치른 거야?

재 호 : 야 이 바보야! 혼자서 혼례를 어떻게 치르냐? 원래 둘이서 혼례를 치렀는데 서방이 도망갔잖지 뭐.

영 철 : 죽은 거야?

재 호 :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순애를 보면서) 얼레리 꼰레리~ 과부래요~ 과부래요~

순 애 : 야! 너 혼나볼래??? 너 이리와!!!

순애는 유씨부인의 존재를 잊은 듯 땡기를 다시 허겁지겁 소매에 넣고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마을 아이들에게로 달려간다. 마을 아이들과 순애는 서로 쫓고 쫓기며 해맑게 마을을 누비고 뛰어다닌다. 그 때 강씨부인이 순애를 찾는다.

강씨부인 : 애!! 새아가!!! 너 대체 거기서 뭐하는 거니! 어서 호미 들고 따라나서!!!

순애는 아이들을 한 번, 강씨부인을 한 번 쳐다보곤 아이들을 밟지 않게 흘

겨보며 강씨부인에게로 뛰어간다. 그리고 그런 순애를 유씨부인이 바라본다.

유씨부인 : (혼잣말로) 우리 연희도 저렇게 활발했는데…….

희미하게 웃던 유씨부인은 바위에서 내려와 집으로 향한다.

014. 정암촌 밭 - 오전

집으로 가는 길옆에 있는 밭에서는 강씨부인이 순애에게 편잔을 주고 있고, 순애는 얼굴과 손에 흙을 잔뜩 묻히고 뽀로통한 표정으로 호미질을 하는 듯하다가 강씨부인이 건너편 밭으로 잠시 건너간 사이에 호미로 무언가를 끼적이곤 밭에서 나와 집으로 뛰어간다. 순애가 뛰어가면서 밭에 흘린 땀방울이 눈에 띈다. 유씨부인은 허수아비에 땀방울을 드릴 거란 순애의 말이 떠올라 밭으로 들어가 땀방울을 줍는다. 그때 그 옆에 순애가 호미로 끼적거린 낙서가 보이는데, 그것은 강씨부인의 심술궂은 얼굴이다.

유씨부인 : (웃으며) 어디서 배웠는지 잘도 그려놨네.

그때 강씨부인이 다시 밭으로 오고 유씨부인은 놀라서 땀방울을 뒤로 숨긴다. 밭으로 온 강씨부인이 밭에 그려진 자신의 심술궂은 얼굴을 본다.

강씨부인 : (그림을 가리키며 화가 난 목소리로) 이거 우리 집 새아가 한 짓입니까???

유씨부인 : (모른 척하며) 아니 글썄요……. 아! 저기 마을 아이들이 뛰어가던데.

강씨부인 : 그럼 우리 새아긴 어디간겨?

유씨부인 : (생각난 듯) 아! 뒷간엘 다녀온다고 급히 갑디다. 급한 모양이어요.

유씨부인은 살짝 웃고는 뒤돌아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밭을 나온다.

015. 정암촌 마을 입구 - 오후

마을 입구에 순애가 세워 놓은 허수아비가 바람에 흔들리며 위태로운 모습으로 서있고 그 허수아비의 팔로 만든 머리엔 땀방울이 예쁘게 드러져 있다. 그때 순애가 울상을 하며 마을 입구로 와서는 허수아비에 땀방울이 드러져 있는 것을 보곤 화들짝 놀란다. 어리둥절하던 순애는 이내 환하게 웃으며 돌아가려 하는데 멀리서 또 다른 이주행렬이 보인다. 순애는 현수가 온 것이 아닐까 싶어서 자세히 행렬을 들여다본다. 이주행렬 속에는 현수가 아닌 다른 낯익은 얼굴이 보인다.

순 애 : 어? 안녕하세요, 최 씨 아주머니!

순애가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를 하자 최 씨는 당황한 듯 걸음을 멈추고 주춤거린다. 그때 순애가 달려가 최 씨의 짐 꾸러미를 빼앗아 들고는 마을로 들어간다.

순 애 : (반가운 듯 마을로 안내하며)이쪽으로 오세요, 아주머니! 난봉이도 왔구나? 김 씨 아저씨는 같이 안 오셨어요?

최씨부인 : (당황하며) 응? 아... 그렇게 됐네.....

난 봉 : (황당하다는 듯) 너도 여기로 온겨?

최씨부인 : (난봉에게) 새댁한테 너라니! 말버릇 좀 고치거라.

난봉은 입을 삐죽거리고 순애는 활짝 웃으며 최 씨를 안내한다. 밭 옆길로 들어선 순애와 최 씨 그리고 난봉이를 본 강씨부인이 화들짝 놀라며 소리친다.

강씨부인 : (화내며) 아니, 저! 도둑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너 잘 만났다! (순애를 보며) 새아기 넌 대체 어딜 갔다 이제 오는 거니, 응? (순애 손에 들린 짐 꾸러미를 보고는) 너 지금 게서 뭐하는 거? 그 짐은 다 뭐야. 철천지원수 집안도 몰라보네, 저 몹쓸 것. 아이구 속 터져!

순 애 : (입을 삐죽거리며) 그냥 도와드리는 건데.....

방 서 댁 : (강씨부인과 최 씨 번갈아 보며 작은 소리로 다른 아낙들에게) 그런데 강씨부인은 왜 저렇게 최 씨 싫어한대요?

문 암 택 : 방서택은 그것도 모르는 겨? 최 씨 남편 이 씨가 강 씨 부인네 재산까지 다 털어서 도망갔자녀~ 이 씨가 강씨부인 남편 김 씨를 꼬드겨서 도박에 몰들었다지 뭐가.

대 성 택 : 김 씨가 순진하게 속은 거지 뭐. 그러니 강씨부인이 저리 길길이 날뛰지…….쫓쫓,

방 서 택 : 아 그런데 여기서 또 만났나 보네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여전히 강 씨 부인과 최 씨 부인은 싸움을 하고, 순애는 그 사이에서 입을 빼죽이고 있다.

강씨부인 : (순애를 향해)새아기 너 집에 가면 혼날 줄 알어!

대 성 택 : 저것 봐, 저것 봐. 저 승질머리 하곤…….

문 암 택 : 쏷 들겠어. 일이나 하자구.

마을 아낙들은 다시 밭을 갈기 시작하고, 순애는 난봉에게 최 씨 짐을 맡긴 뒤 강씨부인과 조금 떨어진 밭으로 들어가 눈치를 보며 호미질을 한다. 그때 김도령의 경쾌한 노랫소리가 들리고, 그의 뒤를 마을 아이들이 재밌다는 듯이 웃으며 줄줄 따라간다. 김도령이 밭에 들어가 팽이질을 하면서 노래를 흥얼거린다.

대성택 : 저 청년은 매일 뭐가 저리도 신날까.

문암택 : 호호, 그러게 말일세. 덩달아 신이 나는구먼.

마을 아낙들은 웃으며 밭을 매고, 마을 아이들은 김도령이 매는 밭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구경을 하며 멋도 모르고 김도령 노래를 따라 부른다.

문암택 : 가만 있어봐, 지금 저 녀석들 촌장님께 글 배울 시간인데? (아이들 쪽으로) 재호야 재민아! 글 배우러 가지 않고 거기서 뭘 하!

아이들이 화들짝 놀라며 도망가려하자 김도령이 아이들을 잡는다.

김도령 : (아이들을 팔로 안으며) 요놈들! 어딜 도망가려구. 글 배우러 가자꾸나.

김도령이 마을 아이들을 우르르 몰고 촌장님 댁으로 뛰어 가고,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최 씨 부인은 난봉이의 손을 잡고 그 뒤를 따라간다.

최씨부인 : 너도 여기 있지 말고 따라가서 공부 좀 하거라. 애미는 짐 정리하고 얼른 밭일 좀 거들어야 겠다.

난 봉 : (버릇없이 화를 내며) 도둑놈 새끼가 공부는 무슨 놈의 공부여! 소학교 나오면 뭐혀. 아버지 도망 가구 여기서 밭이나 갈아야 하느디. 지금 나보고 어린놈들 따라가서 기억 니은 하라는 거여 뭐여!

최씨부인 : 그래도 여기 있는 것 보담 한 자라두 더 보는 게 좋지 않겠어…….

난봉은 최 씨 손을 뿌리치며 밭쪽으로 걸어간다. 아이들을 촌장댁에 보낸 김도령이 멀리서 최 씨 부인과 난봉의 모습을 쳐다보다가 자신도 촌장댁으로 향한다.

016. 촌장님 댁 - 늦은 오후

마을아이들 : 가가 거겨 고교 구규 ~

마을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그제 울리고 그 사이사이에 탄 짓을 하거나 졸고 있는 아이들도 보인다. 김도령은 맨 뒤에 앉아서 가장 큰 소리로 글을 읽고 있다. 그때 뒤쪽 문이 살짝 열리고 그 사이로 난봉이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안을 들여다본다. 촌장이 그를 발견 한다.

조용길 : 너 안 들어오고 게서 뭐하느냐.

마을 아이들과 김도령이 시선이 난봉이에게 쏠리자 난봉이는 짜증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고, 난봉이 뒤에선 - 문에 가려 보이지 않지만 - 최 씨 부인의 손이 살짝 난봉이를 안으로 밀어 넣는다. 쭈뼛거리며 들어선 난봉은 김

도령 옆에 털썩 앉는다.

수업은 계속 진행되고 촌장이 설명을 한 후에 고개를 든다. 그때 조종혁이 책을 만들 종이를 가지고 들어와 촌장 옆에 살짝 내려놓는다.

조용길 : (둘러보다가 난봉이를 보며) 니 이름이 난봉이었지? 방금 내가 읽은 부분을 다시 한 번 크게 읽어보거라.

난봉은 불만스런 표정으로 촌장을 찌려보고, 김도령이 자신의 책을 난봉에게 슬쩍 밀어 준다. 난봉은 책을 잠시 들여다보는 듯 하더니 이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조종혁은 밖으로 나가려다 말고 그런 난봉을 물끄러미 쳐다본다.

난 봉 : 난 이 따위 것 관심 없어요! 밭 매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공부가 밥 먹여 줍니까?! 공부는 무슨, 어차피 재들두 여기서 밭이나 갈면서 입에 풀칠하기 바쁠 것인디.

조용길 : 당장은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린 틀림없이 고향으로 돌아 갈 것이고 고향에 돌아가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글을 계속해서 배워야만 한다.

난 봉 :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난봉은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고 순식간에 방 안은 조용해진다. 조종혁은 난봉이 나간 문을 쳐다본다.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나간 후 텅 빈 촌장님 방. 촌장은 혼자서 책을 만들고자 종이에 글을 쓰고 있고, 조종혁이 들어와서 촌장 앞에 앉는다.

조종혁 :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촌장은 고개를 들어 조종혁을 본다.

조종혁 : (한숨을 내쉬곤) 이 책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아까 난봉이가 한 말, 하나

도 틀린 거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한글은 배워봤자 도움 될 곳이 없습니다. 이럴 시간에 이 만주 땅에서 살아남을 방도를 찾아야만 합니다.

조용길 : (웃으며) 이주 와서 한해가 지났다.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지 않느냐. 먹고 사는 것도 중하지만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산다면 우린 우리 고향을 잃고 말게다. 밭을 땀 때도 아낙들이 우리 옛 터전에서 밭을 매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지금 이렇게 밭이 일구어 졌다. 그들처럼 우리 것을 고수해서 언젠가 다시 고향에 돌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조종혁 : 우리가 고향으로 되돌아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곳에 하루 빨리 적응해야 합니다.

촌장은 아무런 대꾸 없이 계속해서 책을 써내려간다.

조종혁 : (잠시 침묵하다가) 저 내일 잠시 연변 시내에 다녀올까 합니다.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또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조용길 : (무심하게) 그렇게 하거라.

조종혁은 촌장을 잠시 쳐다보고는 밖으로 나간다.

017. 정암촌 밭 - 오전

마을 아낙들과 아저씨들, 유 씨 부인이 다 함께 밭을 매고 저 멀리서 순애와 강씨부인이 밭으로 걸어온다. 강씨부인이 큰 소리로 순애에게 면박을 주고, 순애는 머리를 굽적이며 먼 산을 본다.

방서택 : (순애를 보고 웃으며) 저 집 새댁이는 어쩜 저리 매일 혼이 나누.

문암택 : (같이 웃으며) 아니 어제, 저 철없는 것이 방에 강 씨가 누워 자고 있는 줄을 모르고 고구마를 구워먹겠다고 아궁이에 불을 계속 지핀 모양이여. 덕분에 바닥이 펄펄 끓어서 강 씨 등이 다 별절게 익었다지 않는가.

대성택 : 암튼 간에 못 말려. 그래도 저 새댁이 덕분에 마을에 생기가 돌지 않는가.

호호

강씨부인 : 아니 너는 그래, 집에 불이 날 정도로 불을 지피면 어쩐다니? 아이구 부
엿에도 연기가 자욱하게 나오는데두... 넌 코도 없다니? 그렇게 연기가
나는디 뭐 하고 자빠져 있었냐.

순 애 : 아이, 어머님 죄송해요~. 근데 어머님도 군고구마 좋아하시잖아요,
헤헤......

강씨부인 : 아이구!! 속 터져!

유씨부인은 아낙들의 얘기를 들으며 순애를 보곤 웃는다. 그때 밭 옆으로
호리호리한 체격을 가진 낫선 남자가 지나간다. 순애를 보고 웃던 아낙네들
과 아저씨들은 낫선 남자를 보며 수군덕댄다.

대성택 : 근데 저 사내는 누군가? 처음 보는 얼굴 같으니......

방서택 : 그러게요. 갓 이주해 온 것 같진 않은데......

박치훈 : 아! 얼마 전에 산에 나무를 하러 가는데 저 사내가 산에서 급하게 내려오
는 걸 봤어. 우리 동네 사람이었구먼. 근데 어찌 밭에 일을 하러 한번을 안
나오는가?

장성필 : 그러게 말이여. 보아하니 딸린 식솔이 있을 것 같지도 않은디...... 얼굴
에 상처도 그렇고 영 찻찻하구먼.

낫선 남자(배억구)는 밭을 매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흘끗 쳐다보고는 다시
가던 길을 간다. 그때 억구 맞은편에서 난봉이가 최 씨 부인과 함께 밭을
매러 오고, 그 모습을 본 강 씨 부인은 이를 갈며 그들을 흘겨본다.

강씨부인 : 도둑년......

최 씨 부인은 강 씨 부인을 본체만체하며 자리를 잡고 밭일을 하기 시작한다.
난봉은 팽이질을 하고 최 씨 부인은 호미질을 한다. 그들이 같이 밭을
매는 것이 못마땅했던 강 씨 부인은 괜히 시비를 걸기 시작한다.

강씨부인 : (최 씨 부인을 향해) 니 서방이 떼먹고 나른 돈 언제 갚을 거야! 니 서방 때문에 우리 집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최씨부인 : 아니, 그게 어디 우리 집 양반 때문이랍니까. 그 집 아저씨가 도박에 빠져서 그런 것 아닙니까!

강씨부인 : (최 씨 부인 쪽으로 다가서며) 우리 집 바깥양반은 술은 좋아해도 생전 도박에는 손을 안 대던 양반이야! 근데 어쨌는가. 니 서방이 꺾어서 그렇게 된거!

강씨부인이 점점 더 앙칼지게 말을 하고 입 꼭 다물고 그를 지켜보던 난봉이 들고 있던 팽이를 바닥에 뺨 집어 던진다.

난 봉 : 그 돈 내가 다 갚아주면 될 거 아냐!!! 그 돈 내가 다 갚을 테니 걱정 마시오!!!

강씨부인 : 어린 것이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도둑놈 밑에서 자랐으니 애가 저 모양이지.

난 봉 : (기가 막힌 듯이) 뭐가 어째요?!?!

난봉이 화가 나 강씨부인에게 다가가려 하자 최 씨 부인이 그를 말린다. 난봉은 분을 삭이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밭에서 나간다.

018. 정암촌 마을 어귀 - 저녁

며칠 후 저녁, 조종혁이 다시 정암촌으로 들어온다. 그의 양손에는 책이 가득 들려있다.

019. 촌장님 댁 - 오후

촌장이 마당에 조종혁의 방을 바라보고 섰다. 조종혁은 연변 시내에 다녀온 이후로 며칠 동안 무얼 하는지 집 밖으로 나오질 않았다. 그가 가져온 책들이 어떤 책인지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촌장은 바깥세상에서 들여온 것들이 탐탁치 않다.

촌 장 : (혼잣말로) 일본 것들 피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것을 지켜야 마을이 하
나가 되는 것이야...

020. 박치훈네 마당 - 저녁

대성택이 술독을 이고 마당 평상으로 바빠 걸어온다. 평상에는 박치훈과 장
성필이 앉아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치훈 : 오늘 거하게 한잔 하세나. 너무 일만 허두 못 써.

장성필 : 하하하, 거 박치훈 많이 드슈, 젤루 열심히 하지 않는가.

박치훈이 장성필에게 술을 따라준다.

장성필 : (한잔 마시며) 사실 첩에는 원망도 많이 했어. 자네 말만 듣구 왔는디 완전
황무지였으니 말이여. 그래두 이제 좀 살만 허지 않은가.

그때 배억구가 지나가다 이를 보고 담 밖에 섰다.

배억구 : 거 냄새가 좋네요.

박치훈 : (경계하며) 누구요?

장성필 : (작은 목소리로) 거 있잖여, 얼마 전부터 나타나서 어슬렁 다닌다는 그 놈
이구먼.

박치훈 : 그럼 우리 마을 사람이지. 이리 들어와 한잔 할테요?

배억구 평상으로 온다. 박치훈이 따라준 술을 꿀꺽꿀꺽 마신다. 셋은 그렇게
술 한독을 비운다. 처음에 말이 별로 없던 배억구가 얼굴이 벌개지자 음흉
하게 웃으며 입을 연다.

배억구 : 내가 어디서 왔는지가 뭐가 중합니까.

장성필 : 거 정암촌 온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궁금해서 그러지. 보아하니 딸린 식솔
도 없는 것 같은디 어찌 혼자 여기꺼정 왔소?

배억구 : (피식 웃으며 중얼거린다) 사람 죽인 놈이 그럼 혼자 도망치지, ... (당황하며) 아, 아니 나두 고생하다가 왔슈. 거 완전 시골에 살다가 말이유.

박치훈 : (의아하게 쳐다보며) 그전에 뭐라고 하지 않았소??

장성필 : 뭐라고 했는디, 아이고 이제 가봐야 것슈. 우리 재민이 재호 잠 들었을라나.

장성필과 배억구 일어나 대성택에게 인사를 하고 나간다. 박치훈은 한참을 이상한 듯 배억구 가는 뒷모습을 보고 섰다.

021. 마을 뒷산 - 오전

산나물을 캐러 마을 뒷산에 오르는 순애는 발밑에 피어난 이름 모를 꽃도 구경하고 나무도 구경하고 조금 더 높이 올라가서는 뒤돌아 마을을 내려다 보기도 하면서 봄 풍경에 빠져 있다. 그때 바스락 거리며 인기척이 나고 순애가 돌아본 곳에서는 난봉이가 지게에 나무를 지고 내려오고 있다.

순 애 : (반가운 듯) 나무하러 온 모양이구나! 다했니?

난 봉 : (지게가 무거워 킁킁 거리며) 휴……. 그러는 넌?

순 애 : 나물 캐러 왔지. 야, 이것 봐라?

순애는 엄지손가락과 검지로 집게를 만들어 좀 전에 잡은 나비 날개를 살짝 잡아 보여준다.

순 애 : (자랑하듯이) 요기 꽃 위에 있는 걸 내가 잡았어.

난 봉 : (빼딱하게) 나물이나 캐라. 니 얼굴 보니까 니네 시엄마 생각나서 짜증나.

난봉은 방향을 틀어서 풀 숲 다른 길로 내려가려고 한다. 덩치에 안 맞게 몸이 약한지 지게를 진 난봉의 뒷모습이 위태로워 보인다.

순 애 : 좀 쉬다가지? (난봉이 돌아보지 않자) 야! 근데 그 쪽에 뱀굴 있다?

난 봉 : (뒤도 안 돌아보고) 시끄러. 나물이나 캐.

순애는 그런 난봉의 뒷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나비를 손에서 놓아주고는 나물바구니를 들고 다시 나물을 찾아 나선다. 그때 뒤에서 난봉의 고함소리가 들린다.

난 봉 : 악!!!!!!!

순애는 놀라 뒤돌아보았고 난봉은 아까 순애와 만난 지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풀숲에 주저앉아 있었다. 순애가 뛰어 가보니 난봉이 다리에 피를 흘리고 있고 지게에 지고 오던 나무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순 애 : 무슨 일이야?

난 봉 : 뱀... 뱀에 물렸어.....!

순 애 : 뭐? 야! 그러게 내가 그 쪽에 뱀굴 있다고 진작 말했잖여!

순애는 나물바구니를 옆에 두고 황급히 난봉의 다리를 걷어 생채기를 확인하곤 입으로 피를 빨아 옆에 뱉어내길 반복한다.

난 봉 : (당황하며) 뭐하는 거!!

순 애 : 가만 있어봐. 독 빼내야 해. 너 자꾸 소리 지르면 독 퍼져서 죽는다?

그러자 난봉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입을 꼭 닫았고 순애는 몇 차례 피를 빨아 내더니 자신의 치맛자락을 손으로 찢어 난봉의 다리 상처부위에 칭칭 감아준다.

순 애 : 일단 나무는 내일 다시 하고 어서 내려가서 치료받아야해. 빨리 가자.

순애는 난봉을 부축하고 난봉은 순간 움찔하지만 겁에 질린 표정으로 순애가 하자는 대로 순순히 따른다.

022. 난봉이 방 - 밤

난봉이 누워 낮에 있었던 일을 회상한다. 순애가 자신을 부축해 산을 내려 온다. 이 마을에서 자신과 최씨부인에게 친절한 사람은 순애뿐이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과 최씨부인을 볼 때마다 뒤에서 수군거리기 일쑤이다. 이내 고향에서의 모습이 떠오른다. 아버지가 도망간 후 강씨부인이 최씨부인의 머리채를 잡고 고함을 지르고 있다. 난봉이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오다 그 장면을 목격한다. 난봉이의 눈물이 베갯잇을 적신다. 입술을 꼭 깨물고 눈을 질끈 감는다.

023. 촌장님 댁 마당 - 낮

추석이다. 마을 곳곳에서 모락모락 지붕위로 연기를 내며 전 부치는 소리가 들리고, 마을 사람들은 갓 만든 음식이며 받아둔 술독을 이고 분주히 촌장 댁 마당으로 들어온다. 촌장님 댁에서는 유씨부인이 바쁘게 전을 부치고 있고 아낙들은 그 옆으로 다가와 앉아선 일을 함께 한다. 아이들은 들뜬 분위기에 신이 나서 해맑게 뛰어다니고, 마을 아낙들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에 기분이 좋아 전 부치는 손놀림이 흥겹다. 순애는 최씨부인과 똑 떨어져서 전을 부치는 강씨부인 옆에서 일을 도와가며 전을 하나 집어 먹는다. 맛있는 전을 맛본 뒤에 오는 건 강씨부인의 꿀밤 뿐이다.

강씨부인 : 그만 주워먹고 얼른 전 뒤집어!

순 애 : (꿀밤 맛은 곳을 어루만지며) 네 어머니..

아낙들은 분주히 일을 하다가 모여 앉아 이야기 꽃을 피운다.

유씨부인 : 아, 그래두 한 해만에 이 정도가 어디랍니까. 그동안 다들 고생했는데. 이제 좀 살기 수월해지겠지요.

방 서 댁 : 그러게 말이에요. 거 처음 도착했을 땐 어찌나 허탈하던지... 억울하기도 했구. 일본 놈들 거짓말에 속은 우리 꼬라지가 오죽 답답했어요?

문 암 댁 : 어찌겠어. 그래도 이만큼 정착했으니 앞으로 더 잘 살면 되는 것이여.

순애는 강씨부인 눈치 보랏, 마을 아낙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라 바쁜 듯이

눈을 굴린다. 그때 바깥에서 농악기 소리가 흥겹게 들려온다. 순애와 아낙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든다.

유씨부인 : (밝은 표정으로) 농악대를 이끌고 온 모양입니다.

문 암 태 : 호호. 아~ 사람 사는 마을 같네.

순애는 눈을 반짝이며 강씨부인 눈을 피해서 집 밖으로 살금살금 뛰어 나간다.

024. 마을 길 - 오후

밖으로 뛰어나온 순애의 눈 앞으로 가을 수확을 축하하는 농악대가 지나간다. 마을 남자들이 이끄는 농악대였고 그 제일 앞에선 김도령이 들뜬 표정으로 노래를 하고 있다. 농악대의 악기에는形形色색의 천이 둘러져 있어 추석 분위기를 더욱 화사하게 해줬고, 순애는 그런 농악대에 이끌려 그 행렬의 끝자락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따르기 시작한다. 마을 전체가 흥에 겨워 있었고 그 여세를 몰아 농악대는 마을을 한바퀴 더 돌기로 한다. 마을을 돌아 다시 마을 입구 즈음 왔을 땐 흥에 겨운 순애가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어느새 농악대 행렬의 선두로 나와 있었다. 어느새 장구도 하나 꿰차고 손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장구를 치던 순애는 장구에 둘러져 있는 붉은 색 천을 가지고 마을 입구에 세워져 있는 허수아비를 향해 달려 간다. 다른 남자들은 여전히 농악대를 이끌고 마을을 돌고 있지만 김도령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허수아비를 향해 달려가는 순애를 본다. 순애는 혼자서 빙글 빙글 돌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허수아비 곁에 서서 장구를 치더니 가지고 간 붉은 색 천을 허수아비 목에 둘러준다. 김도령은 순애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환하게 웃는다. 그리곤 멈췄던 노래를 다시 부르며 순애와 함께 농악대 행렬을 향해 달려 간다.

025. 촌장님 댁 마당 - 저녁

마을 남자와 김도령 그리고 순애가 촌장댁으로 시끌시끌하게 들어온다.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모두 밝게 웃으며 마당에 자리 잡고 앉아

이야기를 한다. 배억구와 이난봉은 여기저기 눈치를 보다 마당 구석 쪽 자리에 앉는다. 아낙네들은 준비해둔 음식을 분주히 나르고 있었고, 또 한차례 강씨부인에게 잔소리를 들은 순애는 아직도 흥이 가시질 않는지 잔소리를 들고도 만면에 웃음이 가득하다. 김도령은 순애를 보며 빙긋이 웃곤 술병을 들고 슬쩍 순애가 앉아 있는 곳으로 간다. 혼자 자신의 어깨춤에 심취한 듯 음악도 없이 덩실거리는 순애의 팔에 부딪치지 않게 조심하듯 앉은 김도령은 그 주변에 앉은 다른 남자들과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즐겁게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신다. 이주 온 이후 가장 즐거워 보인다. 밤이 되어 보름달이 떴다. 촌장이 일어선다.

박치훈 : (술을 마시려다 멈추며) 어허, 다들 잠시 조용히 합세, 촌장님 말씀하시네.

조용길 : (웃으며) 아, 별것은 아니니 음식 들면서 듣게. (잠깐 땀을 들인 후) 우리가 이곳 땅에 와서 정암촌이란 마을을 만들어 정착한지도 한 해가 넘었네. 다들 그동안 너무 고생해주었네. 소중한 이를 잃기도 했고 사람들 간에 다툼이 생기기도 했어. 조상님이 묻힌 고향의 선산에는 이제 갈 수 없겠지...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 모두 하나가 돼서 앞으로도 잘 해나가야하지 않겠나...

분위기가 다소 숙연해진다. 유씨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순애는 고개를 숙인다.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달이 노랗게 밝다.

김도령 : 아리라랑 스리라랑 아라리요...

김도령이 청주아리랑을 부르자 마을 사람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한다. 청주아리랑과 함께 밤은 깊어간다.

026. 다시 1978년 김민철의 집 - 늦은 오후

녹음기 테이프가 돌아가고 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시간이 꽤 흘러 해가 정암산의 서쪽을 넘어가고 있었다.

김민철 : 잠시 쉬게나. 벌써 저녁때가 되었구만.

조근석 : 예? (이야기에 푹 빠져 있다가) 아, 예. 알겠습니다.

김민철 : 내 오랜만에 고향에서 온 손님을 위해 저녁을 대접하리라.

조근석 : 아닙니다. 귀한 이야기를 들었으니 제가 대접해 드려야지요.

김민철 : 어허. 혼자 사는 홀아비의 집이라 찬이 시원찮을 것 같나? 있어보게. 주먹만한 감자와 팔뚝만한 옥수수를 반찬으로 내오겠네.

조근석 : 하하하. 기대하겠습니다.

김민철은 고향에서 온 조근석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러 식당으로 가고, 조근석은 녹음이 잘 되어 있는지 녹음기를 재차 확인한다.

027. 박씨 촌장의 집 - 늦은 오후

황의중은 아리랑 조사의 취지가 담긴 계획서를 손에 쥐고 박치훈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황의중 : 촌장님. 이 계획서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는 청주아리랑의 원형을 찾아서 정암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청주에서는 더 이상 청주아리랑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정암촌에는 아직까지 옛 청주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가에 그것을 찾아내어 기록하고 알리는 것이 저희의 일이자 꿈입니다.

박치훈 : 자네들도 우리에게 새로운 사상을 주입하러 온 것이 아닌가?

황의중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정암촌의 사상을 정신을 배우러 온 것입니다.

박치훈 : 말을 그렇게 해도 속은 다를 수 있지.

황의중 : 제가 청주태생입니다. 정암촌은 제 마음속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박치훈 : 그러면 오늘만 있다 가세. 아직 허락한 것은 아닐세. 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을터이니 조심하게.

028. 마을회관 앞 -저녁

황의중은 촌장과의 대화를 마치고 마을회관으로 들어가려는데 마을 입구에서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린다.

박미선, 김정선 : 까악!

황의중 : (급하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뛰어가며) 무슨일인가?

박미선 :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저기 귀신이.....

검은 물체가 빨간 눈을 번뜩이며 노려보고 있다.

황의중 : (화들짝 놀라며) 저게 무엇인가?

김정선 : 산골이라 귀신이 살고 있나봐요.

황의중 : 이 세상에 귀신같은건 없네.

황의중교수는 애써 태연한척하며 검은 물체를 향해 다가간다.

황의중 : (마음을 놓으며)이거 낮에 봤던 허수아비 아닌가? 빨간 땡기가 달빛에 비쳐 착각했나보군.

박미선 : 휴. 정말 놀랐어요.

김정선 : 산골마을의 낮과 밤은 참 다르네요.

황의중 : 귀신같은 건 없다니깐. 그건 그렇고 지금까지 조사하다가 왔는가?

박미선 : 예. 정암촌은 정말 때문지 않은 곳이에요.

김정선 : 여기 저기에 청주아리랑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황의중 :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하지만 정암촌도 시련이 있을게야. 문화대혁명이 있었지 않은가?

황의중과 조사원들은 오늘 조사한 자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마을 회관으로 돌아간다.

029. 김민철의 집 - 저녁

조근석은 김민철과 같이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계속한다.

조근석 : (긴 숨을 내쉬며) 정착할 때까지 고생이 많으셨군요. 하긴 그 시기엔 한국 사정도 나을 건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마을 사람들이 협심해서 마을을

일구었잖아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지금까지 모두 함께 마을을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김민철 : (김민철을 한번 쳐다본 후 한숨을 쉰다)……. 광복 후에는 조국으로 많이들 돌아갔네. 정착은 했지만서두 그렇다고 여기 삶이 녹록치는 않했어. 몇몇은 돈 벌겠다며 마을을 떠나기두 했구 말이여. 떠날 수 없는 이들만 남아서 명절만 되든 한 섞인 청주아리랑을 불렀제.

조근석 : (무릎을 치며) 아, 예! 청주아리랑! 그렇죠, 남은 사람들은 청주아리랑을 부르며 하나가 된 거죠? (표정이 밝아지며) 그렇게 다함께 고향의 것을 잃지 않고 이렇게...? 분명 문화대혁명도 정암촌을 빗겨나간 것 같네요.

그때 김민철의 눈빛이 강하게 흔들린다. 한동안 둘 다 말이 없다.

김민철 : 다함께 하나가 되었다…….

알 수 없는 대답을 한 김민철은 아까 끝내지 못한 이야기를 잇기 시작한다.

030. 다시 1967년 <연변시내 모습들>

모택동 어록을 들고 다니는 학생의 모습들, 연변 내에 있는 4개의 홍위병들이 무력으로 대립하는 모습, 학교 앞에서 모욕당하는 교장들의 모습, 책을 태우는 모습 등.

031. 정암촌 밭 - 낮

마을 사람들이 밭에 모여 있다. 마지막 수확을 걷는 듯. 하지만 밭은 흉년으로 말라있고, 아저씨들은 허탈하게 서있다. 못 보던 얼굴도, 사라진 얼굴도 있다. 정착한 뒤로 2,30년이 지나 그때의 아이들도 청년이 되어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이며, 광복이후 몇 집이 고국으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강씨부인 : (주저앉아서 서있는 순애에게) 이를 어쩐다. 작년에는 쌀이 좀 안돼서 그렇지 보리로라도 견뎠는다. 이번엔 보리도 이리 안 좋으니.

순 애 : (속상해하는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저희 집은 저랑 어머니만 어떻게든 풀칠하면 되지만 식구 많은 다른 아주머니네가 더 걱정이예요. 문암댁 아주머니 네도 그렇구……. 아, 죄 씨 아주머니는 몸이 더 안 좋아지셔서 일도 못하셨을 텐데…….

강씨부인 : 그 집은 난봉이놈까지도 게으르니깐 그런 거고! (비꼬는 듯) 너는 속두 좋지. 웬수 집안까지 걱정해서 뭇헌다. 싸게 싸게 일이나 혀.

순 애 : 네…….

처음부터 순애와 강 씨 부인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던 김도령도 순애가 고개를 숙이고 일을 하자 고개를 숙이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일을 하기 시작한다.

대성댁 : (같이 주저앉아서 한탄하듯이 팔로 땅을 쳐가며) 아이고 아이고 이제는 보리도 안 되는구먼. 그람 여기서 뭘 더 해먹겠누. 이제 일 년 내 뭉먹고 산디야~ 아이고

박영난 : (엄마인 대성댁을 부축하듯 같이 앉으며) 엄만 매일 이렇게 밭에 나와서 한탄만 하면 뭇혀유. 이란다구 쌀이 나는 것두 아니다.

대성댁 : (원망스러운 듯 껍 돌아앉으며) 우리 신세가 불쌍혀서 그런다. 느이 삼춘네 처럼 진즉에 싸들고 내려갔어야 했어. 광복소리 들릴 때 그때 갔어야 했는디……. (박영난을 한 대 치며) 니가 켈 불쌍해 이것아. 영철이는 장가라두 갔지. 넌 남편 없이 자식만 딸렸으니. 아휴 니 젓먹이 애까지 생각하면 더 속이 터진다. 애비도 누군지 모를 고것 땀에 시집도 못 가구 이게 뭐디야.

박영난 : (대성댁에 비해 차분하게) 또 그 소리. 난 시집 안가구 우리 애기랑 평생 살거여~ 그리구 난 청주에 우리 밭은 기억두 안 난단 말여. 여기가 우리 밭인디 어딜 간단 말이여. 엄마두 이렇게 광복타령 할 거면 그때 삼춘댁 식구 따라 내려가지 았구……. 그게 다 정암촌 이 땅 때문인 거 아녀유? 나 자랄 땐 여기가 두 번째 고향이라구 귀에 못이 박히게 말 하드만.

대성댁 : (풀이 죽어서) 그땐 그때고……. 지금은 이렇게 살기 힘드니…….

문암댁 : 그래도 작년 한해도 힘들다, 힘들다 했어두 그럭저럭 조금이라도 심고 거 뒹잖여. 올해도 이거 조금 걷힌 거라도 어떻게 먹고 살면 되야. 참 이주해

오고 정착했을 때 기억 안 나는 거? 그때도 살았는디…….

방서댁 : 휴. 젊은이들은 밖으로 나가구 우리나라 아저씨들은 나이가 먹으니 일손이 부족해서 더 그런가 봐요.

김도령 : (다들 둘러보며) 걱정도 좋지만 불평만 한다면 일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속상하더라도 지금은 이 정도라도 견을 수 있다고 좋게 생각하자구요. 아니면 그러지 말구 촌장님께 말씀드려 봐요. 다 같이 사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032. 정암촌 마을회관 - 늦은 오후

정착 때부터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글을 가르쳐 오던 촌장 댁의 사랑방이 이제는 좀 더 넓게 바뀌어 마을 회관이 되어있다. 이제는 늙어 버린 촌장님을 가운데로 마을 아저씨들(박치훈, 장성필, 조종혁, 김도령 등)과 아주머니들(대성댁, 문암댁, 방서댁, 유 씨 부인, 강 씨 부인, 순애 등), 그리고 몇 명의 청년(장재호, 재호 아내, 장재민, 박영난 등)이 둘러 앉아있다.

장성필 :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잘 생각해봐유. 진작 광복이 됐으니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여.

조종혁 : 지금 광복이니 고향이니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밖은 지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구요. 농사나 한민족 얘기는 이제 케케묵은 옛것이고, 우리가 버리고 온 것들일 뿐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지금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촌장은 고개를 약간 숙이고 가끔 꼬덕이며 사람들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종혁의 말을 듣고 문득 고개를 든다. 하지만 이내 체념한 듯이 다시 고개를 숙이고 듣기만 한다.

장재호 : 종혁아저씨 말씀이 맞아요. ‘그래도 여기서 자랐으니까’ 하는 생각에 남아 있었지만 변하지 않고 이렇게 지켜오기만 했더니 발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재민 : 이제껏 지켜오느라 새롭게 바뀌면 어떻게 좋아지는지 볼 수 없었던 겁니

다. 새로운 것도 한 번 받아들여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 애 : 정착하면서 마을 사람들 다 같이 잘 해 왔잖아요. 그게 좋아서 정암촌에서 사는 건데, 그런 것들로 싸우면 이 정암촌은 오래 못가요. 서로 나뉘지 않고 살기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분명.

김도령 : 자자, 오늘은 수확문제 때문에 모인 거니까 어떻게 하면 일 년 동안 다 같이 먹고 살아갈지 얘기해봅시다~

장성필 : 그러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녀~ 우리같이 늙은이야 새로운 게 어떻든 상관없슈. 그것보다 당장에 먹을 게 있어야 말이지.

순 애 : (촌장을 보며) 일을 했던 저희는 조금이라도 먹을 게 있는데…….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했다는가 밭 터가 안 좋다던가 해서 사실 거의 수확을 못한 식구들도 많아요. 그런 집들은 정말 어떻게 하나요.

강씨부인 : (순애 곁에서 순애를 못마땅한 듯이 쳐다보며) 이것이 또 괜한 걱정이여. 오지랖두 넓지. 우리 먹기도 힘든데.

박난영 : (순애 곁에 있다가 순애에게 속삭이며) 난봉아저씨도 침엔 일을 잘 하더니…….아주머니들이 자꾸 수군대고 미워해서 일안하구 밖으로 나돌게 된 거 아녀유?

유씨부인 : (촌장을 보며) 해마다 농사가 안돼서 마을 전체가 정말 걱정이네요, 아버지.

조용길 : (모두를 둘러보며) 휴…….땅이 주신 식량은 정해져 있고 마을 사람들은 많습니다. 똑같이 나눠서 돌아가진 않았다고 해도 우린 다들 인정을 베풀 수 있을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베풀면…….

모여 있던 사람들은 저마다 한숨을 쉬며 실망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거나, 욕심내서 자기 것을 챙기려는 등 웅성거리며 의사를 표현한다.

박치훈 : 죽어가는 사람이야 돌볼 인정이 있지만, 일 안하고 뺑질거리던 사람한테 까지 베풀어 주기는 싫슈! 배역구 이런 놈들은 오늘같이 수확하는 날도 거들기는커녕 보이지도 않찬여.

대성택 : 맞아유. 그리고 해마다 이래선 진짜 안 될 일이여. 여기서 별 뽕족한 방법이 없는 거여. (박영난을 잡아끌며)에이, 그만 가자, 애 젓 물려야 하잖여.

김도령 : (촌장 곁에 있다가 촌장을 보며) 계속 이러다간 진짜 안 좋아질지도 모르겠네요. 어쨌죠.

033. 정암촌 밭 - 저녁

촌장이 흉작인 밭을 바라보며 뒷짐을 지고 생각에 잠겨있다. 지난 일을 생각하는 듯. 뒷모습은 일흔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곧은 모습이다. 하지만 거친 손과 얼굴의 주름 등에서는 이주 시기부터의 고생을 엿볼 수 있다. 계속된 흉년 때문에 들었던 이런저런 한탄들이 촌장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다.

vo. 대성택 : 어쨌 해마다 흉년이지야.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여기 놀러 앉아 있었는데 지……. 광복 때 내려갔어야 했슈. 촌장님 이것 쯤 보셔유. 이렇게 하면 된담서 왜 해마다 흉작인 것이여.

vo. 박치훈 : 그나마도 수확한 게 이리 적은디 그걸 다 같이 나누잔 말이유? 생각을 해보슈. 저런 배역구 같은 놈덜은 일을 거들도 안 했는디 그런 놈 줄게 어딴단 말이여.

vo. 강씨부인 : 맨 처음 한 마을에 다 같이 살자 그럴 때부터 알아봤어. 일 안하고 받아먹는 저런 놈이랑 돈 때먹은 놈하구는 쫓아 내버리는 게 다 살기 좋은 방법이지.

vo. 조종혁 : 아버지 언제까지 고국의 것을 고수하고 있을 순 없습니다. 갈 사람은 이미 내려갔고, 우린 여기 남은 이상 마을을 개혁해서 더 편히 살 궁리를 해야 해요.

조용길 : (과장되지 않게, 그러나 깊은 한숨)휴…….

촌장은 생각하기를 멈춘 듯 집으로 가기위해 밭을 보고 섰던 밭길을 돌린다. 광복 후 사람들이 빠져 나가고 약간은 쓸쓸한 마을의 모습. 그때 촌장의 집 뒤뜰에서 무언가를 태우는 듯 한 연기가 올라온다.

조용길 : (의아해 하지만 어딘가 의심하는 구석이 있는 듯 한 표정) ?

034. 촌장댁 뒤편 - 저녁

조종혁이 농악기를 부수고, 이주 이후 촌장이 아이들을 가르쳐오던 책을 태우고 있다. 그런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촌장의 모습. 의심은 하고 있었지만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충격이 크다.

조용길 : (충격 받은 얼굴로) 아니, 애비야..

하지만 조종혁은 그런 아버지의 반응을 예상한 듯 크게 놀라지 않는다.

조종혁 : (조용길은 쳐다보지도 않고 담담하게) 이런 것들은 걸리적거릴 뿐입니다.

조용길 : (예상외의 말에 버럭하며) 걸리적거리다니! 이것들이 아니었으면 지금껏 지켜온 정암촌도 없었을 것이거늘. 아이들의 가갸거겨 소리를 잊었느냐? 처음 수확하던 해 모두 한마음으로 울린 농악을 말이다!

조종혁 : (갑자기 조용길을 똑바로 쳐다보며) 네!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흥년인데 넉넉한 수확을 축하하던 농악을 기억하는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가갸거겨는 이남 고향에서만 쓰는 말인데 잊지 않으려고 한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조용길 : 무슨 소용이냐니……. 우리는 이곳이 아닌 청주에서 난 사람들이기 때문이야. 모든 소중한 것들은 그저 용불용에 상관없이 당연히 지켜가는 것이지, 그런 것을 따져가며 지키는 것이 아니다!

조용길은 더 이상 조종혁의 말을 듣지 않고 돌아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035. 촌장댁 방 - 밤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 유씨부인과 조종혁과 촌장의 모습. 촌장은 밥을 먹고 있는 아들 조종혁을 물끄러미 보다가 다시 밥을 먹는다. 조종혁은 그런 아버지의 눈길을 깨닫지만 쳐다보지도 않고 묵묵히 계속 밥을 먹는다. 며느리인 유씨부인도 이상한 낯새를 느낀 듯. 그런 조종혁의 모습을 본 촌장은 더

이상 식사할 마음이 없어 밖으로 나간다. 그러자 유씨부인이 눈치를 채고 조종혁에게 말을 건다.

유씨부인 : 개혁두 좋지만…….우리가 해온 걸 바꾸면서 까지 해야 하나요. 아시잖아요. 아버님이 여기까지 와서 얼마나 힘들게 우리 마을 지켜 오셨는지.

조종혁 : 당신은 몰라서 그래. 지키려다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도 다 봐왔잖소. 여기에 왔으면 진작에 여기의 것을 따라야 했어. 중국 정부에선 우릴 받아주려 하는데 우리가 계속 거부해서는 손해만 볼뿐이라구. 당신도 우리 단원들을 만나볼 필요가 있어. 그래야 아버지처럼 답답한 소릴 안하지.

유씨부인 : (놀라며) 당신 그럼 진짜 시내에서 저 난리를 피우는 단원들이랑 어울리는 건가요? 누명도 씌우고 고문도 하구 그런다던데…….아버님이 아시면…!

조종혁 : 당신은 항상 그렇게 구식으로 생각하는군. 그들의 사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무 문제도 없대두.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일깨워 줘야해. 이제껏 내가 그래왔던 것처럼. 그래서 조만간 마을 청년들에게 농혁명 사람들과 함께 홍위병들을 소개시켜줄 참이오.

036. 정암촌 마을 입구 - 오전

조종혁은 시내로 나가는 길인지 마을을 나가는 길에 배억구를 만난다.

배억구 : (조종혁을 보자)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 같이 좀 먹고 삼시다~. 흥년이라고 마음썸썸이 까지 흥흥해 졌더이다. 다 같이 이 지옥에 데리고 왔을 때처럼 촌장 좀 잘 구슬려 주슈. 똑똑하신 아들 말이면 잘 듣잖여.

조종혁이 쳐다본다.

배억구 : 아닌 게 아니라, 지키자, 지키자 하는 양반이 고향을 버리고 여기 온 이유가 뭐겠소. (조종혁에게)성이 말을 잘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번 흥년에도

나 같은 것도 쫓 챙기자고 잘 좀 말해주구려. 다른 사람들은 너무 팍팍해서 말이지. 아유~ 박치훈은 날 일 안한다고 아주 죽이려 들더라. 그래도 그 사람들, 촌장님 말씀이라면 잘 들으니까. (비꼬며) 난 성님만 믿겠소.

조종혁은 무시하고 가려다가 한 가지 생각이 난 듯.

조종혁 :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같이 가 볼 테요? 이런 농사 안지어도 다 잘 살 수 있단 말이오. 더 넓은 세상을 알게 되는 것이지.

배억구는 대답도 않고 자연스럽게 조종혁과 같이 길을 나선다.

037. 홍위병 아지트 - 낮

조종혁과 배억구가 함께 있고, 다른 홍위병 몇 명이 있다. 옛돼 보이지만 홍위병의 우두머리인 듯 한 홍우근이 조종혁의 말을 듣고 있다. 홍우근은 그리 길지 않지만 다부져 보이는 곤봉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조종혁 : (홍우근에게 반짝이는 눈빛으로, 배억구의 어깨를 잡으며)마을에 이런 젊은이들을 일깨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언제 한번 마을에 가서 우리의 뜻을 전합시다.

홍우근 : 당신 생각처럼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만 해서는 우리의 뜻을 전하기엔 부족한데……. 내 조부모는 만주에 와서도 언제나 족보를 들먹였지.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말을 하면 외국간첩이라고 신고해야할 일인데 말이오. 민족을 운운하는 것이야 말로 간첩짓이 아니고 무엇이오. 그래서 우리가 발전이 없었던 것이요.

배억구가 홍우근의 음흉한 속내를 조금이나마 알아챈 듯 홍우근을 쳐다본다. 홍우근도 조종혁은 답답하다는 듯이 무시하고 배억구를 바라본다.

조종혁 : 발전의 첫걸음이 변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암촌은 정말 변해야 하오. 내가 본 넓은 세상을 그들도 알 수 있게 힘을 써 봅시다.

038. 정암촌 순애의 집 - 낮

순애가 쌀을 한 바가지 퍼서 나가면서 강씨부인을 만난다. 강씨부인이 눈을 흘긴다.

순 애 : 촌장님께서 수확 못한 집에 조금씩 나눠주자구 하셨잖아요.

강씨부인 : (등을 한 대 휘갈기며)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어딜 그렇게 퍼준단 말이여!! 끼니때마다 쌀 얼마나 남았는지 다 봐놔으니까 누구 줄 생각은 하지도 말어!

순 애 : 난봉이가 밖으로만 다니구 해서 이번에 암 것도 못 거뒀잖아요. 최 씨 아주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죽이라도 드셔야할 것 같아서…….

강씨부인 : 그년이 죽으면서도 우리 것 뺏어먹고 죽을라구 그러는 것이여. 그런 년한테 뭘 더 갖다 준다구!! 배고프다!! 그 집에 갖다 줄 생각 말고 그걸로 점심상이나 내오거라!

순 애 : 네…….

길을 지나가던 김도령이 마당에서의 강씨부인과 순애의 대화와 점심을 하러 들어가는 순애의 모습을 본다. 연민의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청주아리랑을 흥얼거리며 담밖에 섰다. 순애는 김도령과 눈이 마주치지만 애써 외면하고 부엌으로 들어간다.

039. 마을의 길가 - 낮

배억구는 신나는 일이 있는지 콧노래를 부르며 마을로 들어와 어슬렁거린다. 하지만 그의 즐거운 낮빛에는 어딘지 모르게 음흉한 구석이 있으며, 눈은 이리저리 살피고 있어 무슨 일을 궁리하는 사람 같다. 그의 눈에 마을 아저씨들은 다 같이 밭에 일을 하러 가는 모습이 보인다.

배억구 : (아저씨들에게 비꼬며) 지금이라도 따라나서면 촌장님께서 감자라도 몇 알 챙겨주신답니까?

박치훈은 배억구를 쏘아본다. 배억구는 여전히 빙글거린다.

배억구 : 수고들 하십시오~.

배억구가 지나가자 침을 뱉는 박치훈. 나머지도 좋아하는 눈치는 아니지만 그냥 못들은 척 하고 지나간다.

박치훈 : (혼잣말로) 다른 사람은 다 퍼줘도 너 같은 놈은 못준다. 이때까지 우리말에 잘도 붙어서 살아왔지. 별거지 같은 놈.

장성필 : 촌장님도 어째 저런 놈까지 챙기자하시는지…….

장재호 : 아이구, 촌장님요? 애초에 다 같이 나눠먹자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일하는 사람도 이렇게 정해져있는데. 아버지도 일안하셔도 될 연세신데 다 우리가 족 쪼끔이라도 먹고살자구 일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렇게까지 일한 걸 나누자시니…….

마을 아저씨들이 수군거리며 지나간다. 배억구는 비꼬듯 실실거리며 말은 했지만 아저씨들이 지나가자 그의 얼굴은 분노로 바뀐다. 그는 심상치 않은 눈빛으로 지나간 사람들을 쳐다본다.

040. 김 씨의 집, 안방 - 낮

강씨부인이 분이 안 풀린 듯 허공마저 흘겨보며 밥을 먹고 있다.

마당에선 순애가 품에 바가지를 안고 살금살금 대문을 빠져나가고 있다.

041. 이난봉의 집 - 낮

최 씨 부인이 안방에 누워있는 것이 보이고, 이난봉은 장롱 안에서 족보를 꺼내 들고 아픈 최 씨 부인을 슬쩍 보고는 집을 나서려고 한다. 그때 순애가 바가지에 쌀을 들고 대문을 들어선다. 바가지에는 꽤 많은 양의 쌀이 있다. 순애는 이난봉에게 바가지를 급히 준다.

순 애 : (난봉에게 바가지를 주며) 담엔 감자두 줄게. 우리 감자가 실하잖아. (난봉이 열른 받지 않고 보고만 있자 직접 안겨주며) 우리 집은 어머님이랑 나뿐이니까 나눠 줄 쌀이 좀 있었어.(이난봉의 어깨너머로 최 씨 아주머니를 보며) 아주머니 죽이라도 해드려.

이난봉 : 강 씨 아주머니가 또 지랄하지 아녀?

순 애 : 티 안 나게 몰래 갖고 왔으니까 아주머니 잘 챙겨드려. (나가는 차림새를 보고) 자꾸 밖으로만 돌아다니지 말고.

이난봉 : 조종혁 아저씨가 우리 마을에 홍위병들 모시고 온다고 해서 나가보려던 참이여. (순애가 손에 든 것을 쳐다보자 족보를 보이며) 아 억구 아저씨가 홍위병 온다고 사람들 모을 때 잘 살려면 족보 태워야 한다구해서 이거라도 들고 가보려구……. 어차피 족보 같은 거 있어도 별 볼일 없는 집안이니..., 같이 가볼터?

순 애 : 아니 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갈 데가 있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데?

042. 정암촌 밭 - 낮

장재호가 아저씨 무리를 이끌며 책과 족보를 들고 지나간다. 아저씨들 사이에선 대화가 오간다.

장성필 : 요즘 저 사람들을 따라 붙어야 잘 살수 있다는 말도 못 들은 거?

박치훈 : 그건 좀 아닌 거 같은디…….

장성필 : 아니긴 뭐가 아녀~ 촌장님이 우리 방법대로 하자구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흉년인거 아녀~ 그 사람들 말 들으면 확실히 달라진다고 찌기 우리 아들이 그랬어.

박치훈 : 조종혁이처럼 그런 교육 말인가? 그거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

장재호 : 우리들이 농사짓구 못산다, 못산다 하지만 저 사람들은 농사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이라고요. 샌님들이나 보는 책이랑 판따라들이나 하는 노래 같은 것은 필요 없대요. 배운 사람이 제일이 아니라, 우리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제일로 쳐준대요!

장재민 : (들고 가서 태울 책을 들어 보이며) 그러니 이렇게 책들을 다 태우는 거지요.

장재호는 마을 밭에 모여 있는 아주머니들을 향해 소리친다.

장재호 : 공터에 마을 개혁하러 홍위병이 와있다는데 같이 갑시다~!

박영난 : 개혁은 무슨! 연변시내에서 하는 짓거리나 안하면 다행이지.

방서택 : 책이랑 악기 같은 거 모아서 태운다는 거 말여?

박영난 : 태우기만 하는가요?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해친다는구먼유.

방서택 : 아이구 그런 사람들이 무섭게 여긴 왜 온대. 우린 가진 것도 없는데.

문암택 : 답답한 사람들아. 그게 다 변화하자는 거 아녀~ 우리 같이 못사는 사람들도 다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던디 가봅시다.

마을 아주머니들도 반신반의하며 따라나선다.

043. 촌장택 - 낮

홍우근을 포함한 홍위병 몇 명과 조종혁이 대문을 들어선다. 유씨부인은 부엌에서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오던 중 조종혁 무리가 들어서는 것을 본다. 그녀는 놀람과 실망의 표정이지만 이내 체념한 듯 촌장 방 앞으로 간다.

유씨부인 : 아버님~애비가 밖에서 손님을 모시구 왔네요.

조 용 길 : (방안에서 목소리만) 흠…….

조종혁은 그런 촌장의 반응을 미리 알았다는 듯이 급하게 말을 꺼낸다.

조종혁 : 아버지. 마을을 위해서입니다.

유씨부인은 그들 사이에서 곤란해 하고 있다. 그때 배억구가 대문을 들여다 보며 조종혁을 부른다.

배억구 : 성님~ 마을 사람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쫓 불러 모아봤슈. (홍우근을 보고 굽실거리며) 아이구~ 귀한 걸음 하셨습니다.

홍우근 : 오늘 촌장님 뵙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돌아가야 하나 했더니 잘 됐네요.

조종혁은 뿌듯하게 배억구와 홍우근의 대화를 지켜본다. 배억구와 눈이 마주치자 잘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배억구와 홍우근 무리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하지만 나가면서 닫혀 있는 촌장의 방문과 방 앞에 서있는 유씨부인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돌아본다.

044. 순애의 집 - 낮

순애 집의 부엌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나온다. 빈 바가지를 뒤로 감추고 침착하게 걷지만 눈은 주변을 살피고 있다. 그가 순애의 집 대문을 벗어나자마자 식사를 마친 강씨부인이 소리를 지르며 나온다.

강씨부인 : (두리번거리며) 이것이 또 어딜 간 것이여. 이 늙은이한테 설거지를 시킬 참인가! (잠시 생각하며) 가만있어봐, 요년이 또 우리 먹을 거 판 사람들한테 나눠주려 나간 거 아녀?

강씨부인은 씹씹거리며 부엌에 들어가 감자며 보리며 남은 식량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쌀독을 들여다보며 의아한 듯 가우똥 한다.

강씨부인 : (혼잣말처럼 작게) 쌀은 으째 더 많아진 것 같디야. (안심하며) 그래도 뭘 퍼준 건 아니라서 다행인디 (부엌을 나오며 버럭 한다) 아니 그람 요년은 또 어딜 싸돌아 댕기는 겨!

045. 정암촌 길가 - 낮

길가에는 청주아리랑을 흥얼거리는 소리가 퍼지고 멀리서 김도령이 빈 바지를 흔들면서 기분 좋게 걸어온다. 하지만 마주 오는 순애를 보고는 빈 바

가지를 등 뒤로 감추며 자연스럽게 뒷짐을 진 듯 차분하게 걸어간다. 둘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고개만 까딱하며 인사를 하고 지나간다. 순애는 발 밑을 보고 가지만 김도령은 아직 순애를 보고 있다.

김도령 : (순애를 스치면서) 이제 마을 앞에 바위에는 그만 나가보세요. 몇 십 년이 지났는데…….

순애는 발밑을 보며 가다가 김도령의 말을 듣고는 눈이 동그래지며 고개를 들고 앞을 본 채 걸음을 잠시 멈춘다.

김도령 : (순애를 보고 있던 눈길을 땅으로 깔며)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쯤 강 씨 아주머니께서 어디 갔냐구 화내고 있을 것 같으니까…….

순애는 아까보다는 더 빠른 걸음으로 갈 길을 간다. 김도령도 가던 길을 계속 가지만 어깨와 함께 바가지를 든 팔도 축 쳐져 있으며 흥얼거리는 청주아리랑은 좀 전에 불렀던 것 보다는 느리다. 김도령의 청주아리랑이 멀어지자, 한참 가던 순애는 뒤로 돌아 그런 김도령의 뒷모습을 한번 보고 작은 한숨을 쉬며 다시 원래 걸어오던 빠르기로 걸어간다.

046. 마을 공터 - 오후

한 구석에서는 홍우근과 배억구가 둘만의 얘기를 하고 있고, 조종혁은 시끄러워진 마을 사람들을 진정 시키려 사람들 앞에 나와 있다.

박치훈 : (홍우근과 배억구 쪽을 가리키며) 그러니까 저 사람들 말은 우리말까지 버려야 한다는 거 아녀~ 고향 떠나온 것도 서러운디 어째 그런다! 저런 놈들 얘기는 들으러 올 필요도 없었어.

박치훈은 홍우근의 말 때문에 화가 난 것인지 홍우근에게 찰싹 붙어있는 배억구에게 화가 난 것 인지 자신도 잘 모르는 듯하다.

장성필 : (작은 소리로) 먹고 살 수만 있음 되는데.

조종혁 :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중국 정부에서 좋은 땅도 주고 정식 주민으로 인정해 준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흉년이 와도 정부에서 모른 척 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요즘엔 배운 사람들보다 농사를 최고로 쳐주는 바람이 불고 있으니 저들의 말대로 하면 손해 보는 것은 없을 겁니다!

박난영 : 손해 보는 게 없다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애는 우리말을 못 배우게 될 텐데!

장재민 : (못마땅한 듯) 애비도 모르는 자식인데 민족이고 조상이고 뭐가 중요하대.

이난봉 : (조종혁이나 홍우근이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난 잘 살아 볼터유. 이딴 거 태울 테니 어디 방법 좀 가르쳐 주슈.

장재호 : 자자, 농사에 필요 없는 이런 것을 태워야 농사가 잘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들고 온 사람들만이라도 모아서 태워버립시다!

일부는 영문도 모르고 태우는 것에 동참하는 사람도 있고, 잘 살고 싶지만 그럴 순 없다며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홍우근과 배억구는 대화를 나눈다.

홍우근 : (떠나는 사람들을 보며) 마을이 어렵다 해서 더 잘 구슬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딱히 그렇지도 않군요. (배억구를 은근히 쳐다보며 아깝다는 듯이) 아 우리가 이 마을 사람들을 다 흡수시킨다면 엄청난 포상금이 떨어질 텐데…….

배억구 : (솔깃) 아니, 그런 게 있었습니까?

홍우근 : 정부에서도 이번 혁명을 통해 소수민족들을 무력으로라도 동화시키길 원하고 있죠. 그렇지만 소수민족이란 게... 알겠습니까? 어디든 뽕뽕 뭉치고 민족성 운운하고 전통이니 뭐니 고수한답시고 답답한 것만 하는 거. (화내며 돌아가는 마을 사람들을 보며) 저렇게 하면 더 힘들어진 다는 걸 모르는 건가. 쫓쫓. 어차피 돌아설 건데 잘 구슬릴 때 따라 와주면 좋으련만. 그렇다고 우리가 직접 나서서 저 많은 반대 세력들을 제거할 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배억구 : 그럼 저 사람들이 반대 세력 없이 다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정부에서 돈이 내려온단 말인 거?

홍우근 : 뭐 그렇긴 한데... 촌장은 그렇다 쳐도 우릴 따르는 조종혁이도 아버질 닮았는지 답답한 구석이 있어서 말이죠. 무력까지 쓸 위인은 못돼서 안타깝네요. 자기한테 떨어질 것도 많을 텐데.

배억구 : (눈을 반짝이며) 이 마을에 선생님들 편이 어디 조종혁이 뿐입니까? 이제 저도 있자녀유. 저기 저 앞장서서 책 태우고 있는 젊은이들도 곧 따를 테고. 아니 그것보다 반대파 제거하는 것쯤은 부모 없고 처자식도 안 딸린 지한테는 식은 죽 먹긴데 말이쥬. (속삭이며) 이미 사람도 (손짓으로 목을 그으며) 죽인 몸이니…….

홍우근 : (속으로 내심 기뻐하며) 허허. 머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보니 조종혁보다는 믿을만하네요. 뭐 죽일 필요까진 없지만 그 정도로 방법이 과격해도 이해합니다. 확실히 반대 세력만 제거만 한다면.

배억구 : 그럼 지한테두 떨어지는 게 있단 말이지유?

홍우근 : 이제 같은 단원인데 당연하죠. 그런데 조종혁도 없이 괜찮겠어요?

배억구 : (남아서 책을 태우고 있는 젊은이들 중 한명을 유심히 본다.) 다 방법이 있어유.

047. 순애의 집 - 저녁

강씨부인은 나갈 채비를 한다.

강씨부인 : (순애를 보며) 이번에는 개혁하러온 홍위병인가 그 사람들 땀에 회관에 모인다는데 너는 안 갈터?

순 애 : 네……. 거기 가면 마을 사람들 또 싸우고 할 텐데. 그냥 전 여기서 바느질이나 하고 있을 게요. 어머님은 마실 삼아 다녀오세요~

강 씨 부인 : (혼자 구시렁거리며) 나 없이 혼자 있음 지세상이니까 그러지. (빼친 듯) 다녀오마!

강 씨 부인이 집을 나선다. 장성필 가족도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왔고, 박치

훈 가족도 박영난의 아이를 재워놓고 살짝 나온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집집마다 불을 끄고 나와 회관으로 몰려든다.

048. 홍위병 아지트 - 밤

같은 시각 조종혁은 거뒀온 듯 한 책과 악기 같은 것을 안고 홍위병 아지트로 들어온다. 홍우근은 들고 있던 곤봉으로 그것들을 관심 없다는 듯 그저 뒤적거린다.

조종혁 :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젊은이들이 점차 우리를 받아들일 겁니다. (안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며) 추가로 수거해왔는데 마을 사람들도 지금은 전통을 지키려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태우고 없애준다면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게 답답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게요.

홍우근 : 음……. 연변에 있는 같은 홍위병끼리도 무력으로 싸우고 있는 판국에…….그 사람들이 전통을 버리기만 해선 될 게 아니요. 같은 중국인이 되고, 같은 홍위병이 되어 같이 싸워줘야 하죠.

조종혁 : 그것 때문에 오늘은 마을 전체가 회의를 한다고 하던데, 소각을 주도하던 젊은이들 몇몇은 우리와 같은 편이니 크게 걱정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홍우근 : 글썄요. 저번에 소개시켜준 배덕구란 사람은 의견이 약간 다른 것 같던데요.

049. 정암촌 마을회관 - 저녁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장성필: 이제 이곳에 온지도 몇 십 년이 흘렀으니 여기 것을 따를 만두 하지요. 안그러?

박치훈 : 그게 다 우리 꼬드기려는 거 아냐? 말도 못쓰게 한다자녀~

장재호 : 홍위병 말 들어보니 틀린 말 하나도 없더이다. 이곳에 와서 우리끼리의 말

과 전통을 고수한다면 여기서 보기엔 간첩 아니고 뭐겠어요?

박영난 : 그러니까 살기 편하자고 중국 편에 붙어서 이제껏 지켜온 걸 버리자는 거예요?

강씨부인 : 듣다보니 그냥 버리라는 게 아닌 것 같구먼... 거역하면 간첩으로까지 몰고 갈 기세던데, 아녀?

김도령은 편이 나뉘 싸우는 마을 사람들을 보다가 순애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조용길 : 지금 당장은 지켜나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국으로 흡수된다고 하면 민족을 버렸다는 이유로 그때는 더 굴욕적인 짓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대성택 : 그럼 당장 힘든 것은 어찌잔 말이유?

050. 정암촌 배억구의 집 - 밤

밖은 조용하고 안에는 배억구와 이난봉 둘밖에 없다.

배억구 : 그분들 말씀 들었지? 우리가 이 마을을 바꾸는 거.

이난봉 : 책이고 족보고 모아서 태웠잖여. 그람 되는 거 아녀유?

배억구 : 그것은 전통을 없애려는 커다란 뜻의 시작일 뿐인 거. 진짜루 바꾸려면 반대도 없어야하.

이난봉 : 홍위병 선생 말씀 들어두 안태우고 돌아가는 사람들 많았자녀? 그 사람들을 어찌 다 구슬려야 하는 거유?

배억구 : 그래 그런 사람들이 숨겨놓은 게 더 많다구. 사실 바로 간첩으로 신고할 수도 있지마는 살짝 겁만 주자구.

이난봉 : 억구 아저씨가 이렇게나 바깥 사상을 받아들였을 줄은 몰랐슈.

배억구 : 나처럼 마을에 정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내가 너를 잘 챙겨주는 거 아녀~ 여기 있지도 않은 느이 아버지 땀에 청주서도 여기 와서도 얼마나 욕을 먹었냐. 느이 어머니 최 씨 아주머니가 왜 그렇게 아파 누워

있는데. 그게 다 이 마을에서 살면서 받은 눈총 땀에 그리 된 거 아녀~

이난봉 : 아유 강 씨 아줌마만 생각하면……. 돈 다 갚는데두 눈 치켜뜨면서 지랄할 사람이유.

배억구 : 그러니까. 강 씨 아주머니 땀에 마을 아주머니들이 모두 느이 모자를 피하는 거~

이난봉 : (잔뜩 화가 나있다)

배억구 : 대성댁도 얼마다 욕을 하고 다녔다구. 기억안나는겨? 근데 그 집에 박치훈이 모아놓은 농악기들이 쌓여있지. 박치훈이 마을 경사 있음 팽과리 들고 상쇠노릇 했자녀. 그게 마을 회관에 있던 건 줄 알았는데 다 박치훈이네 악기더라구. 헛간에 있는 걸 내 눈으로 확인했지. 박치훈이랑 딸 난영이가 흥위병을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것어? (좀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노에 찬 듯) 또 박치훈 내외는 나를 아주 별거지 취급하더라. 그래서 겁이라도 주자는 거~

이난봉 : 그러! 올 어머니가 그렇게 된 것에 대성댁 아주머니 한 몫 했을 거. 근데 겁준다면 어떻게...?

배억구는 이난봉에게 밖을 가리키며 속삭인다. 밖에는 기름통이 준비되어 있다.

이난봉 : (배억구의 귓속말을 듣다가 놀라며) 사람들이 다치자녀유!

배억구 : 에이~ 겁만 주는 건데 내가 그렇게까지 하겠어? 지금 마을 사람들 전부 회관에 모여 있어서 집엔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마을이 조용하지.

051. 정암촌 전경 - 밤

집집마다 불이 꺼진 모습

052. 정암촌 마을 회관 - 밤

(느리게) 사람들과 촌장의 얘기가 웅성웅성 오가는 도중에 김도령은 눈으로 계속 순애를 찾고 있다. 하지만 그 눈길이 웬지 모르게 불안하다.

053. 정암촌 전경, 난봉이네 - 밤

다시 집집마다 불이 꺼진 마을의 모습. 그 집들 사이로 누군가가 걸어가고 있다. 순애가 강 씨 부인과 마을 사람들 몰래 먹을 것이 모자란 마을 사람들 집에 들어가 쌀과 감자 등을 채워두려는 것. 난봉이네 부엌에도 살짝 감자를 두고 나온다.

054. 정암촌 배억구의 집 - 밤

배억구 : 그냥 겁만 주는 겨~ 내가 미리 알아봤는데 불법으로 농약기랑 족보, 한글 책을 아직 갖고 있는 집이 꽤 되더라구. 그냥 사람들 없을 때 불만 놓고 나오면 되는 겨. 그리구 조종혁이가 지금 홍위병에 가있으니깐 우리도 일마치구 거기서 가서 침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꾸며달라면 되는 겨~

이난봉 : (약간 주춤하는 눈빛이다.)

배억구 : (이난봉의 눈치를 살피며) 마을이 다 같이 잘 살기 위한 길인데, 그걸 반대하고 있으니 그 반대파들 마음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여~ 또 이번 기회에 평소 구박하던 강 씨 아줌마에 대한 복수도 할 수 있지 않겠어?

이난봉 : (강 씨 아줌마 말을 듣고는 눈빛이 변한다.) 그러면 홍위병에서 우리 애길 꾸며주면 아무 뒤탈이 없단 말이지유? 그람 불법으로 그것들 숨기고 있는 집이 또 어디어디 래유?

055. 박치훈의 집 - 밤

순애는 박치훈과 대성택의 집에 감자를 조금 나눠주기 위해 그 집 헛간으로 들어간다. 감자를 놓아둔 후 집을 나오려다가 작은 방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린다. 순애는 고개를 들어 그 방 쪽을 본다.

056. 정암촌 전경 - 밤

때는 늦은 밤으로 집 주인들은 촌장네로 가 촌장과 함께 어떻게 홍위병에

대항할 것인지 의논을 하고 있는 시간이다. 배억구는 집을 나오며, 나오는 길에 있는 집에다 차례로 불을 붙이면서 이난봉에게 시범을 보인다. 처음 이난봉은 당황했지만 이내 수군대던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직접 불을 놓기도 한다.

057. 순애의 집 앞 - 밤

배억구와 이난봉은 순애의 집 앞까지 왔다. 배억구는 난봉이의 눈앞에서 순애의 집에 불을 놓는다. 순간 난봉이 머릿속에 쌀바가지로 안겨주던 순애의 얼굴이 떠오르지만 곧 표독스러운 얼굴로 옥지거리를 뺄어내던 강 씨 부인의 얼굴이 떠오른다. 배억구와 이난봉은 신속하게 하기 위해 집을 나눠 불을 놓기로 한다.

배억구 : (속삭이며 빠르게 나눠서 하자는 손짓을 한다)

난봉이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다음 집으로 이동한다.

058. 박치훈의 집 - 밤

다음 집은 박치훈네다. 배억구는 박치훈의 쏘아보던 눈빛을 생각하며 난봉이에게 장구와 한글 책이 있다는 등 거짓말을 해 놓은 상태라 난봉은 확인해볼 생각도 없이 그 집으로 간다. 헛간까지 들어간 이난봉은 주변에 기름을 뿌리며 주변을 둘러본다. 배억구가 말했던 농악기는 없지만 좀 전에 순애가 두고나온 감자가 보인다. 하지만 이난봉은 순애가 두었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한다.

이난봉 : (주춤하며) 억구 아저씨가 말한 농악기는 다 어딴겨? (다시 손을 바쁘게 놀리며) 아 몰라. 박치훈네 아저씨 젤루 문제렸으니…….이렇게 해둬야혀.

기름을 헛간과 그 집 마루 앞에 뿌리고 불을 붙인 후 그곳을 벗어난다. 대문을 나서서 가려는데 순간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린 듯하다. 난봉이는 가슴

이 덜컥 내려앉지만 누가 볼까 두려워 서둘러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긴다.

059. 박치훈네 작은 방 - 밤

순애는 아이를 달랜 후 아이가 다시 잠들 때까지 옆에 있었다. 순애는 꾸벅 꾸벅 졸고 있었고, 불에 타는 연기가 방에 스며들자 아이가 울음을 터트린 것이다.

순 애 : (졸다가 깜짝 놀라 깨면서) 아 아이 미안미안. 다시 재워줄게~ 자~ 자자 아가.

순애는 아직 졸음이 가시지 않았지만 아이가 다시 울자 아이를 들어앉고 자 장가를 부른다. 노래는 느린 청주아리랑.

순 애 : 아리라랑~ 스리라랑~

아기는 그칠 줄 모른다.

아 기 : 아앙! 아앙!

그래도 순애는 졸린 눈을 비벼가며 아이를 토닥거린다. 그러자 곧 아기 울음소리가 잦아든다. 안심하며 이제야 방안을 둘러보는 순애. 그 순간 순애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진다. 밖에서는 이미 집이 타면서 내는 소리가 들리지 시작하고, 헛간과 마당에 있던 짚과 장작 등이 불타, 집 앞마루에도 불길이 붙었다. 순애가 빠져 나오긴 이미 늦었다.

060. 정암촌 마을회관 - 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있고 하던 얘기는 더욱 고조 되어있다.

장재호 : 어리석은 짓이라니까요! 여기 와서 살고 있는 이상 바뀌어야 합니다!

마을사람들 : (수근 거리며) 맞아, 맞아요.

한숨을 내쉬는 늙은 촌장과 유 씨 부인의 모습이 보인다. 김도령도 한숨을 내쉴다. 박난영도 작게 한숨을 내쉴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것을 깨닫고 아기가 걱정돼 자리에서 일어나 회관을 살짝 나온다. 회관을 나온 박난영의 눈에 보인 마을의 모습은 충격이었다. 깜깜해야 할 마을이 몇몇 집들이 타면서 붉게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붉은 빛은 놀란 박난영의 얼굴에도 비치는 듯하다.

박난영 : (깜짝 놀라며) 아, 아니…….

박난영은 급히 다시 회관으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알린다. 그러고는 미친 듯이 아기가 있는 집으로 뛰어간다.

061. 정암촌 마을 곳곳 - 밤

마을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고 사람들은 불을 끄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놀라운 일이 닥쳤을 때 절로 나오게 되는 듯 한 통곡 소리가 마을을 메운다.

062. 순애의 집 - 밤

강 씨 부인도 불타는 집 앞에서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있다. 김도령은 그런 강 씨 부인을 신경 쓸 틈도 없이 순애의 집에 불을 끄려한다. 강 씨 부인도 왜 그가 자신과 순애가 사는 집 불을 끄고 있는지 의아해 할 정신 따윈 없다. 아니, 김도령은 불을 끄다기 보다 불 속으로 들어가려한다. 그는 나쁜 예상이 들어맞았다는 듯 불안한 눈길로 누군가를 찾으며 불타는 집 안으로 뛰어든다.

강씨부인 : (멍하니 흐느끼며 바닥을 치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며) 아이고 저 총각

이! (문득 깨달은 듯) 아, 아가! 아이구! 아이구!

김도령의 상황은 위험했다. 앞뒤 가릴 것 없이 뛰어든 불길 속은 뜨거웠고, 그 다음은 숨이 막혀 왔다. 그리고는 시야까지 흐려지기 시작하였으나 김도령은 그런 것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점점 더 불 속으로 들어갔다. 눈으로는 여전히 누군가를 찾으려 하지만 어딘가 쓰러져 있을 순애를 생각하면 그렇게 눈으로 찾을 수만은 없었다.

김도령 : (답답한 듯) 저, 저기……. (작게, 하지만 결심한 듯) 아이씨, (조금 망설이다가) 순애, 순애야!

남의 집 부인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도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쩔 수 없다. 그런 것은 지금 김도령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랑곳 하지 않고 한참 순애를 부르던 김도령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 한 발 내딛는 순간, 위에서 불이 붙어 부러지는 대들보의 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오른팔로 머리를 감싼다.

김도령 : 으악!

063. 박치훈의 집 - 밤

대성택도 어쩔 줄 몰라 방방 뛰기만 하다가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박치훈과 함께 집에 붙은 불을 끄고 있다. 하지만 박난영은 거의 정신줄을 놓은 상태다. 다른 마을 주민들도 자신의 집이나 이웃 집 불을 끄고 있다.

064. 홍위병 아지트 - 늦은 밤

홍우근과 조종혁만 있던 곳에 배억구와 이난봉이 들어온다. 홍우근은 뿌듯한 눈빛으로 들어오는 배억구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고, 가까이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악수를 한다.

홍우근 : 역시.

홍우근의 이런 모습에 이난봉은 방화의 뒤처리를 해줄 것이라 생각하여 안심을 하였지만 조종혁은 홍우근과 배억구 사이의 일을 몰라 의아해하고만 있다.

065. 순애의 집 - 새벽

새벽이 밝아온다. 마을은 잿더미다. 김도령은 순애의 집에 불이 꺼지자 그 잿더미 속을 헤집고 다닌다. 그는 재와 검댕으로 뒤덮여 있으며, 오른팔은 화상으로 짓물러 있지만 그는 그런 것 들을 못 느끼는 듯하다. 하지만 아무 것도 찾지 못한 듯 실망하다가 무언가 생각이 났는지 마을 입구 바위 쪽으로 뛰어간다. 하지만 그 곳에도 순애는 없었다.

066. 박치훈의 집 - 새벽

강 씨 부인은 어인이 병병한 상태로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며느리의 행방을 물어본다. 하지만 다들 강 씨 부인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렇게 박치훈의 집까지 온 강 씨 부인은 사람들이 모인 곳의 시체를 보고 멈춘다.

김도령도 터덜터덜 마을 쪽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박치훈의 집에서 오열하는 사람들을 발견한다. 그곳에는 아이와 순애의 타버린 시신이 있었다. 설마 하던 김도령은 사람들 어깨 너머로 확인을 한다. 순애가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자꾸 순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다.

vo. 순 애 : 여기서 서방님을 기다릴 거예요!

067. 마을 입구 바위 - 새벽

그래서 김도령은 다시 마을 입구 바위로 간다. 순애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를 기다리 듯 앉았지만 표정은 멍하니 풀려있다.

068. 정암촌으로 들어가는 길 - 아침

조종혁, 배억구, 이난봉이 마을로 돌아온다.

배억구 : (빙글거리며) 반대파가 없으면 좋은거 아녀유, 성님? 쪼까 겁을 주긴 했는디, 아침엔 어떤 모습일지…….해해

이난봉은 배억구의 눈치를 살피고 있고, 배억구의 의미심장한 말을 들은 조종혁은 심상치 않은 마을 분위기를 느끼자 앞서 달려 나간다. 마을 입구 바위에 멍하니 앉아 있던 김도령은 마을로 들어오는 셋을 유심히 본다.

069. 박치훈의 집 앞 - 아침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간 조종혁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유 씨 부인이 다가와 울먹이며 말한다.

유씨부인 : 순애, 순애가…….

하지만 조종혁은 유 씨 부인의 말은 들리지 않는다. 눈앞의 광경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앞을 주시하고는 있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있다.

이어 도착한 배억구가 마을의 혼란을 감상하듯 둘러본다.

배억구 : (짐짓 큰 소리로 비꼬며) 아이고? 홍위병을 그렇게 반대하던 박치훈집도 홀랑 타버렸네유~. 아이고 무서워라~. 이거 이거 이젠 꿈쩍없이 홍위병 나리들 말씀 들어야겠슈~.

배억구의 말은 곁에 서있던 조종혁에게도 들린다. 조종혁은 홍위병이라는 말을 듣고는 중얼거린다.

조종혁 :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이진 아니야.

조종혁은 자기가 불러들인 바깥 사상 때문에 벌어진 일을 지켜보며 회의를 느끼며 계속 멍하니 서있다. 배억구는 그 말을 뱉고는 왔던 길로 되돌아 마을을 나간다.

뒤이어 도착한 이난봉도 순애가 죽었다는 사실에 놀라지만 티를 낼 수 없다. 자신의 머리를 양손으로 감쌀 뿐. 그 사실은 아무리 정당화를 하려해도 할 수 없어 혼란스러운 표정이다. 죄책감에 사람들 얼굴을 살핀다. 사람들은 모두 순애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겨 슬퍼하고 있었으며 그런 사람들을 보자 이난봉 또한 순애가 잘해주던 생각이 난다. 그는 그 자신에게 화가나 곧장 집으로 간다.

070. 난봉의 집 - 아침

간밤의 일을 모르는 최 씨 부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에서 깨어나 아들을 찾는다.

최씨부인 : (힘없는 목소리로) 난봉아~ 난봉아~ 잠자리가 아주 뒤숭숭했는디…….

넌 괜찮은겨? 걱정되니깐 밤엔 다니지 말거라.

이 난 봉 : (뜨끔하며) 거, 걱정마슈~.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아침상 봐올게유.

난봉은 아침을 차리기 위해서라기보다 최 씨 부인과의 결끄러운 대면을 피하기 위해서 부엌으로 들어온다. 마음을 진정 시키려 해보지만 이난봉의 눈은 다시 놀라움으로 커진다. 그의 눈길을 다라가 보면 순애가 간밤에 몰라 가져다 놓은 감자가 보인다. 이난봉은 그 실한 감자가 누구네 감자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며 오열한다. 다음번엔 감자를 주겠단 순애의 목소리가 이난봉의 귀에 들리는 듯하다.

071. 홍위병 아지트 - 낮

정암촌의 난리와는 상반되게 조용한 곳으로, 홍우근이 곤봉을 들고 자신의 다른 쪽 손바닥에 일정한 박자를 유지하며 탁탁 내리치는 소리만이 울리고 있다. 주변에는 홍위병 멤버 몇 명이 있고, 홍우근과 배억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홍우근 : (대화 도중에도 계속 곤봉을 친다.) 호호 놀랍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요.

배억구 : (칭찬으로 받아들여, 속으로는 자랑스럽지만 겸손한척 하려 머리를 굽적이며) 아~. 하하, 그 정도야, 뭐. 충분히 겁을 줬으니 그 사람들 이제는 거역하는 일을 없을 거요.

이제는 관심 없다는 듯이 곤봉 치는 것을 멈추고 시선을 손에 든 곤봉으로 떨어뜨리며 곤봉을 쓰다듬고 있다.

홍우근 : (무관심하게) 음, 그래요?

배억구 : 어이없이 한명이 죽은 것 같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을 사람들이 다 정신줄을 놓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반대고 머고 마을 지킬 힘도 없을 것이요.

홍우근 : (이제는 계속 곤봉을 만지며 배억구에게 고개만 크게 끄덕여 준다.) 음.

배억구 : (홍우근의 눈치를 보며) 하하, 선생님, 그럼 지한테는 그 포상금이 얼마나 떨어지는 거래요?

하지만 홍우근은 배억구의 물음에 처음 듣는 사실이라는 듯이 여유를 부리며 어깨를 한번 들쭉인다. 이에 이상한 기운을 눈치 챈 배억구는 자신의 편을 한 명이라도 찾기 위해 다른 멤버들 얼굴을 두리번거린다. 하지만 다들 하나같이 차가운 눈빛들뿐이다. 그럴수록 배억구는 당황한다. 홍우근은 그런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 지켜보고 있다가 일어난다. 그러고는 들고 있던 곤봉을 걸음걸이에 맞춰 자신의 목덜미에 안마하듯이 탁탁 치며 배억구 주변을 돌기 시작한다.

홍우근 : (곤봉을 치면서 걷고 있지만 시선은 배억구를 앞보듯 쳐다보며, 갑자기 반말을 쓴다.) 그래, 그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들이면 좋겠지. 뭐? 포상금? 그래, 그런 것도 위에다가 잘만 말하면 받을 수 있는데~, (냉혈한처럼 표정을 싹 바꾸고 정색하며 배억구에게로 얼굴을 들이민다.) 근데 너 같은 놈 줄 건 없어. (배억구에게서 얼굴을 뺀다. 웃음을 참는 듯하다가) 으흐...으흐흐... (못 참겠다는 듯 웃음을 터트리며) 으하하하.

주변에 있던 홍위병 멤버들도 무엇이 그렇게 웃긴지도 모른 채 홍우근의 말이 끝나자마자 가식적이면서도 자지러지게 웃는다.

홍위병 : (다 같이) 으하하하.

그것이 배억구의 화를 돋운다.

배억구 : (홍우근에게 덤벼들며) 이것들이!

하지만 배억구는 순식간에 주변의 홍위병들에게 저지당한다. 배억구의 눈은 홍우근을 노려보고 있다. 홍우근 또한 그 눈을 피하지 않는다.

홍우근 : 너 같은 조무래기들은 참 웃겨. 간첩으로 신고 안한 걸 다행으로 알아야지. 포상금? 하하하. 포상금이라.... 내가 챙겨주기로 약속했다고 우기실려나?

배억구는 홍위병들에게 잡혀 있으면서도 홍우근의 도발에 꿈틀댄다.

홍우근 : (홍위병 다른 멤버들을 둘러보며) 음~ 우기시겠다네, 흐흐. (다시 배억구와 눈을 맞추며) 그럼 우리가 절대로 우길 수 없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

홍우근이 곤봉을 앞으로 한 번 내젓자 배억구를 막고 있던 홍위병들이 배억구를 패기 시작한다.

배억구 : (바닥에 꼬꾸린 채 발길질을 맞으며) 음, 음.

배억구의 입에선 저절로 신음소리가 세어 나오지만 눈만은 여전히 홍우근을 노려보고 있다.

홍우근 : 어어라? 음, 그것도 못하게 할 방법이 있지.

홍우근이 뱉어낸 말의 끝부분엔 비정상적이게 힘이 들어가 있었다. 이미 내려치기 위해 곤봉을 힘껏 들어 올리느라 그랬던 것이다. 그렇게 한껏 들어 올려진 곤봉은 아래를 향해 사정없이 내려쳐 진다.

072. 정암촌 곳곳 - 낮

마을 전경은 예전 같지 않다. 타고 남은 재가 더 작은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린다. 사람들이 힘을 합쳐 마을을 다시 정리하려 한다.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이웃을 일으켜 주고, 상심에 잠긴 이웃에게는 어깨를 빌려 준다. 그리고는 다 함께 타버린 재 속에서 그나마 쓸 만한 것들을 주워내고, 집의 잔해들을 치운다.

073. 이난봉의 집 - 낮

최 씨 부인은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누워있고, 부엌에서 한참을 울던 이난봉도 이제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듯 물끄러미 감자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있다. 그때 열린 대문 밖으로 멀리서 누군가가 약간은 굽은 허리로 달려오는 모습이 보인다.

강 씨 부인 : (숨을 조금 가쁘게 내쉬며 약간은 간절하게?) 난봉이, 난봉이네 있겨?

걱정하는 듯 한 눈으로 급히 대문을 들어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강 씨 부인이다. 하지만 강씨부인은 무슨 일인가 싶어 나온 이난봉을 보자마자 거의 뛰다니피 하던 빠른 걸음을 멈추고, 허리를 곧게 펴으며, 걱정을 없앴 눈과

평소 같이 새침한 낮빛으로 바꿨다.

이 난 봉 : (약간은 잠긴 목소리로) 어쩐... 일이세요...?

강씨부인 : (감정을 숨기듯이 어색하게) 느, 느이 엄마는?

이난봉이 평소처럼 아무런 대꾸도 않고 최 씨 부인의 방으로 가 문을 열자 누워있는 최 씨 부인의 모습이 보인다.

강씨부인 : (최 씨 부인을 보자 약간은 안도하며, 하지만 곧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며) 음, 그래. (어색하게 난봉의 집을 둘러보면서 괜히 화내며) 그래도 느이 집은 피해갔네그러!

그렇지 않아도 불안해하고 있던 최 씨 부인이 그 말을 놓칠 리 없다.

최씨부인 : (여전히 강씨부인의 눈치를 보며) 피해갔다니, 뭘유? 혹시 마을에 진동하는 이 탄내 얘기하는 거?

강씨부인 : (괜히 화내며) 이 사람이 답답하기는! 간밤에 마을에 홍위병이 와가지고 집집마다 불 지르고 달아난 거 몰러?!

최씨부인 : (많이 놀랐지만 강 씨 부인의 눈치를 보며) 아이고 사람들은 괜찬대유?

그 소리에 강 씨 부인은 눈이 풀린 채 허공을 보며 마당에 주저앉아 버린다. 이난봉은 강 씨 부인이 왜 그러는지 대충은 알고 있지만 최 씨 부인은 그런 강 씨의 모습이 놀라울 뿐이다. 잠시 앉아있던 강 씨 부인은 계속 허공을 보며 얘기한다.

강 씨 부인 : (어이없다는 듯이 말하려 하지만 사실은 슬픈 것을 숨기며) 그것두 못 들었어? 우리 집 모자라던 며느리 그것이 또 오지랖 넓게 박치훈이네 집 도와주다가 그 집이랑 다 타 버린 거…… (화난 듯 한 목소리로 하지만 눈물이 맺힌 눈으로 최 씨 부인을 보며) 아직두 못 들은 거?!

최 씨 부인은 깜짝 놀란다. 순애가 죽었다는 사실에도, 강 씨가 슬퍼하는 모

습에도. 이제 강 씨 부인은 최 씨 부인 이난봉이 있다는 것을 잊은 듯 녀두리를 토해낸다. 슬픔을 참으려고 하는 것조차 약간은 화난 것처럼 들려 어색하다.

강씨부인 : (화난 것처럼 공중에다 샷대질을 하며 눈에 힘을 주고는 있지만 눈물이 맺힌 채) 내가 그리 남의 집에 퍼주지 말라고 했는데, 응? 그것이 내 없는 사이에 집집마다 다 퍼준 것이 분명혀! 시집온 첫날부터 도망 다니더니 끝까지 모자란 짓만 하고 도망가는구먼! 이제 어찌 혼내라고! 쫓아가지도 못하게! 서방도, 아들도, 이제 며느리까지 나를 따돌리는 겨?

강 씨 부인은 최 씨 부인과 이난봉이 놀라는 눈빛을 느꼈는지 빠르게 눈물을 훔치고는 씩씩하게 땅을 짚고 일어난다. 하지만 최 씨 부인과 이난봉의 눈빛은 애써 못 본 척하고 있다.

강씨부인 : (머쓱해서 치맛자락을 털며) 그래, 느이도 빗 안 짚고 영영 가버렸을 까봐 한번 와본겨! 이제는 큰소리 칠 데가 여기밖에 없지만 다들 멀쩡하니, 됐네!

강 씨 부인은 과장된 듯 한 움직임으로 대문을 나가지만 그 뒷모습이 쓸쓸해 보인다. 이난봉은 한동안 놀라서 서있고, 최 씨 부인은 이내 강 씨 부인이 간 곳을 연민에 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참 그대로 있던 이난봉은 무엇을 깨달은 듯 집을 나서려 한다.

최씨부인 : (힘없는 목소리로) 나가는 겨?

이 난 봉 : (큰 결심을 한 듯 심호흡을 한 후) 마을 사람들 도와드려야지유~

이난봉은 그렇게 집을 나서며 죄책감에 멀쩡한 자신의 집을 잠시 돌아보고는 작은 한숨을 내쉬는 것과 동시에 고개를 숙이고 걸어 나간다.

074. 정암촌 곳곳 - 낮, 저녁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난봉이 제일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그런 이난봉의 모습을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마을 사람들도 이내 받아들이며 같이 일을 돕는다. 저녁이 되어서는 마을 회관에 모여 다 같이 식사를 한다.

075. 조용길의 집 - 밤, 새벽

유 씨 부인과 조종혁은 긴 하루를 보내서 그런지 편하게 누운 것이 어색하다. 유 씨 부인은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아마 한때 조종혁이 편들었던 홍위병이 마을에 불을 질렀기 때문일 것이다. 유 씨 부인은 눈을 뜨고 있지만 조종혁은 잠이 든 것 같다. 시간이 지나도 유 씨 부인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자 유 씨 부인도 조종혁도 눈을 감고 잠이 든 듯하다. 하지만 이내 조종혁이 눈을 뜨더니 살며시 일어나 방을 나온다. 조종혁이 방을 나가자마자 유 씨 부인도 눈을 뜨지만 일어나서 따라 나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는지 슬픈 눈동자만 흔들리고 있다. 그대로 날이 밝았다.

076. 조용길의 방 - 아침

유 씨 부인은 시아버지인 조용길의 방문을 두드려 아침 문안 인사를 하려한다. 방 안의 조용길은 이미 잠에서 깨서 정리까지 다 한 후 앉아 있다. 유 씨 부인도 방에 들어와 조용길을 살피듯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유씨부인 : 좀 주무셨어요?

조 용 길 : (한참 있다가) 다 내 탓이다.

유씨부인 : 그런 말 마세요~ 아버님.

조 용 길 : 휴…….

유씨부인 : 아침 준비할게요.

유 씨 부인은 부엌으로 나가려는 듯 일어나서 문 앞까지 갔지만 나가지 않고 할 말이 있는 듯 가만히 문을 바라보고 서있다. 조용길은 유 씨 부인이 서있는 이유를 안다는 듯이 입을 떼다.

조 용 길 : (시선을 고정한 채 앞만 보며) 애비는 촌장인 나보다도 더 제 탓을 하며
죄책감을 느낄 사람이야. 그러니 기다리지 않는 게 좋을 게다.

유 씨 부인은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결코 원하지 않던 대답을 듣고 말아서
그런지 눈물이 흐른다.

유씨부인 : (참느라 떨리는 목소리로) 네...아버님.

유 씨 부인은 아무렇지 않은 듯 한 뒷모습을 보이며 조용길의 방을 나온다.

077. 정암촌 곳곳 - 오전

전날과 같이 이난봉을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 이제는 마
을 사람들이 더 이상 일하는 이난봉을 어색하게 보지 않는다. 멀리서 오른
손에 봉대를 감은 김도령이 도우러 오는 것이 보인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
이 고개 숙여 일을 하면서도 청주아리랑을 낮게 부르기 시작한다. 아리랑은
정암촌 곳곳에 울려 퍼진다.

078. 다시 1978년 마을 길 - 밤

긴 이야기를 마친 김민철은 조용히 밤하늘의 달을 바라본다. 무사히 녹음을
끝낸 조근석은 내일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악수를 청하고 김민철의 집을
나선다. 정암촌의 밤은 달빛을 받아 밝게 빛났다. 조근석은 딸애의 생일을
놓칠세라 자정이 넘어가기 전에 전화국으로 향한다. 전화국으로 향하는 길
목에서 조근석은 촌장과 이야기 하고 있는 황교수를 만난다.

박치훈 : 이 늦은 시간까지 돌아다니는가?

황의중 : 조근석 조사원이 오질 않아 찾으러 다니던 참이었습니다.

조근석은 밝은 표정으로 황의중 교수님을 부른다.

조근석 : 황교수님! 제가 청주아리랑을 찾았습니다.

황의중 : 나도 찾았네. 정암촌이 바로 청주아리랑이었네. 마을 어디에서나 청주아리랑을 쉽게 찾을 수 있더군.

조근석 : (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신 모습이 의아한 듯) 촌장님은 오해가 풀리신 건가요?

박치훈 : 오해라니. 난 아직까지도 자네들을 허락한적 없네. 하루 종일 마을을 뒤집고 다니는 자네들을 못 봐줘서 내 한 소리 하러 온 걸세.

황의중 : 따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치훈 : 듣긴 무얼 들었다고? 더 이상 마을사람들 흐리기 전에 내일 돌아가시오.
(조근석을 쏘아보며) 자네도 이제 마을을 헤집지 말고 회관으로 돌아가게.

조근석 : 촌장님. 오늘이 딸애 생일인데 아직 생일축하 노래를 불러주지 못해서요.

박치훈 : (딸의 생일 이야기에 표정이 달라지며) 딸애 생일이 오늘이라고?

조근석 : 네?

박치훈 : (사그라진 표정으로)전화하러 가는 길이라면 이 길을 따라가면 전화국이 나올걸 세. (혼잣말로) 혼자 찾아갈 수 있을라나?

조근석 : 고맙습니다. 청주아리랑을 딸아이에게 불러줄 생각입니다. 딸아이가 아리랑을 워낙 좋아해서……

박치훈 : 우리 딸도 아리랑을 곧잘 불렀지. 타지 손님이 우리 마을에서 길을 잃었다고 소문나면 정암촌이 나빠질 거야. (마지못해 안내하려는 듯)처음 가는 길이라 헤맬지도 모르니 나를 따라오게.

조근석 : 정말 감사합니다. 촌장님 청주아리랑 끝부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불러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딸아이에게 제대로 된 아리랑을 불러주고 싶습니다.

박치훈 : 먼저 시작해보게.

조근석 : 아리라랑 스리라랑 아라리요 아리라랑 스리라랑 아라리요
달라당 달라당 갑사댕기 본때도 안 묻어서 사주가 왔네

조근석, 박치훈 : 아리라랑 스리라랑 아라리요 아리라랑 스리라랑 아라리요
사주랑은 받아서 무릎에 놓고 한숨만 쉬여도 동남풍 된다

시아버지 골난 데는 술 받아주고 시어머니 골난 데는 이 잡아주자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요

새애끼가 골난 데는 엇 사다주고 며느애기 골난 데는 흥두깨찜질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요

시아버지 죽으면 좋했더니 빨래 줄이 끊어지니 또 생각난다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요

시어머니 죽으면 좋했더니 보리방아 묶어놓니 또 생각나네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요

시아끼가 죽으면 좋했더니 나무가리 쳐다보니 또 생각나네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요

서방님이 죽으면 좋했더니 잠자리 들 적마다 또 생각난다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타령을 그 누가 냈나 이웃집 김도령 내가 냈지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타령이 얼마나 좋은지 밥 푸다 말구서 엉덩춤 춘다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요

촌장은 조근석의 선창에 이어 아리랑을 따라 불렀고, 황의종교수도 촌장의
사연 많은 아리랑을 따라 부르며 조근석 일행에 조심스럽게 합류한다.

아리랑으로 하나가 된 세 명은 힘차게 청주아리랑을 함께 부르며 전화국을
향해간다. 노래가 끝난 후 조근석의 머릿속에는 김민철과 악수할 때 스치듯
보였던 화상 흉터가 자꾸만 떠오른다.